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보스톤 로건공항 터미널 E, 한국에서 도착한 승객들이 출입구를 나서고 있다. 인타깝게도 각국의 언어로 환영한다는 말이 써져 있지만 한국어는 보이지 않는다

시민협회, 한국계 정치인 네이트 배 큐펠 후원 모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시민협회는 떠오르고 있는 한국계 네이트 배 큐펠(Nate Bae Kupel; 한국명 배강식)의 선거 후원모임을 9월 25일 오후 4시 몰든시 헌팅필드(Hunting Field)에서 개최한다.

시민협회는 이날 모임에서 생일을 하루 앞둔 큐펠 후보를 위해 한국 음식과 음료, 그리고 생일 케이크를 마련한다.

몰든 8지역구(Ward 8) 시의원에 출마한 큐펠 후보는 하디애니 시카 현임 시의원과 11월 본선에서 최종 대결을 벌인다.

지난 9월 14일 열린 예비선거에서는 시카시 의원이 25표, 큐펠 후보가 14표를 득표해 1,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날 투표장에는 총 등록 유권자 5,061명 중 9%에 불과한 유권자들만 투표에 참가했다.

강력한 현임 시카 시의원을 넘어서기 위해 큐펠 후보는 “시카 후보는 여러해동안 시의원으로서 유권자들과 유대관계를 쌓아온 힘든 상대” 라고 인정하면서 ▶▶2면으로 계속

11월부터 미국 입국시 코로나 백신접종 · 음성확인 의무화

기존 국가별 여행제한 대체...한국엔 접종 완료 요건 추가
미국 국내여행은 백신 의무화 아직 안해, 그러나 가능성 열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은 11월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과 음성 판정 증명 의무화 한다.
미 언론에 따르면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바이러스 조정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행제한 규정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외국 국적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

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또한 출발 3일 이내에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한국의 경우 현재는 음성 판정 증명만 하면 되지만 11월 초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 확인까지 필요해 미국 입국이 까다로워지게 된다. 미국은 이렇게 입국 규정 완화 정책을 발표했지만 한국 입장에서선 백신 접종 완료라는 요건이 추가되는 강 ▶▶7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KATHY SONG PREMIER REALTY GROUP

고객만족도 평가 5/5을 보여주는 고객 최우선 서비스를 약속 드립니다.

주택, 상가, 비즈니스
매입 매매 상담 환영합니다.

Call Kathy Today 413.313.4165
Kathysong2019@gmail.com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Korea licensed
Mul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2021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노인회는 21일 추석을 맞아 80세 이상의 어른들을 서울설령탕으로 초청해 함께 식사를 하고 송편을 나누었다. 행사후 참가자들이 서울설령탕 바로 앞에서 함께 촬영한 모습

노인회 추석맞이 점심식사, 반가운 애기꽃 피워

기차 타고 버스 두번 갈아타고 방문한 회원도 있어 한국의 가수 노래들으며 우울증 치료했던 경험담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노인회 추석맞이 점심식사는 50여 회원들이 모여 송편과 식사를 함께 나눴다. 안부와 반가움은 반찬이었다. 보스톤한미노인회(회장 윤철호)는 9월 21일 올스턴(Allston, MA) 소재 서울설령탕에서 80세 이상의 노인회원들을 초청해 점심식사 시간을 가졌다. 윤철호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식당입구에서 반갑게 노인회원들을 맞이했다. 일부는 노인회에서 제공하는 차편을 이용했지만 뉴햄프셔에서 기차를 타고 다시 버스를 두번이나 갈아타고 서울설령탕까지 온 회원도 있었다. 자리잡은 어른들은 따뜻한 설령탕, 도가니 탕 등을 주문해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였다. 한 분은 자신이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

렸는데 한국의 한 가수의 노래를 들으며 그의 팬이 되면서 우울증이 치료됐다고 말했다. 이 분은 영사관에서 이 행사에 참석한 박육현 영사가 “그 가수와 너무 닮았다” 며 즐거워했다. 각 테이블에는 한순용 부회장이 직접 만든 송편이 준비되어 추석의 맛을 멀리 아국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노인회는 송편을 선물로 따로 증정했고 박육현 영사는 한국 KF94 마스크를 참석한 회원들에게 증정했다. 이 행사에는 서영애 한인회장이 함께 참석했다.



시민협회, 한국계 정치인 네이트 배 큐펠 후원 모임

▶▶ 1면에 이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복지와 요구에 대해 귀를 더 기울일 것” 이라고 밝혔다. 팬데믹의 한가운데 유권자들은 도로재포장, 타운 녹지화, 사이드워크 재정비, 교통 및 과속방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특히 그는 물든 주민의 50% 이상 이 영어에 능통하지 못한 사람들이며 이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시정부에 전달되는지 모르거나 포기하고 지내고 있다며 여러 소셜 서비스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임양 한인인 네이트 배 큐펠 후보는 사회에서 외면받는 커뮤니티를 위해 다양한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해왔고, 보스톤한인임양아(Boston Korean Adoptees, Ins.) 협회 회장을 6년동안 맡았었다.

큐펠 후보는 “사람들은 전국 또는 보스톤 시 등의 후보에 관심을

기울인다. 물론 이런 선거도 아주 중요하지만 각 지역의 선거는 매일 살아가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선출직을 뽑는 것이므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기부와 자원봉사를 적극 환영한다” 고 지원을 당부했다.

양미아 시민협회장도 초대의 글을 통해 “우리 뉴잉글랜드 한인 여러분이 힘을 합해, 힘차게 떠오르는 한국계 정치인 후보 '네이트 배 큐펠'씨를 후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선거에서 가장 큰 힘은 선거자금이다. 큰 선거기금은 우리의 작은 후원으로 모여진다” 며 기부를 당부했다.

Nate Bae Kupel x KACL-NE Fundraiser

bostonkorean@hotmail.com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령탕 SEOUL SOULONGTANG

SUMMER SPECIAL COLD NOODLES

물냉면 14.95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비빔냉면 14.95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뉴잉글랜드한국학교 온라인 개학, “봄학기엔 대면수업”

팬데믹이었던 작년에 비해 등록학생들 많이 늘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가 18일 가을학기 개학식을 온라인으로 갖고 2021~ 22년도 새학기를 시작했다. 이번 학기는 온라인으로 시작했으나 내년 봄학기부터는 대면수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남일 교장은 개학식에서 “원래 이번 학기에 대면수업으로 복귀를 생각하고 있었으나 델타변이 급속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말하고, “오는 2022년도 봄학기 개학식은 대면수업으로 복귀하여 강당에서 갖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복귀 시기는 가을학기 후반 또는 내년 봄학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일 교장은 또 “작년에 비해 신입생 숫자가 많이 늘었다. 각 과정별로도 신입생이 많이 늘어 일부 학급은 신입생을 받지 못하고 대기자 명단에 올려진 상황”이라면서 학생들에게 “이번 학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모두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기를 바라며 선생님들도 최선을 다해 맡은 학생들을 지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 교장에 따르면 이번 학기부터는 가장 어린 연령의 학급인 기초 준비 병아리반(담

임 이현석)이 1년 만에 오는 10월 9일부터 수업을 재개하게 된다.

학부모회 신보경 회장도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이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학부모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들께서도 한 해 동안 즐겁게 배우고 가르치실 수 있도록 학부모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후원하겠다.”며 격려했다.

한편, 남 교장은 학교의 10개 부문 리더교사, 45개 학급의 담임/부담임 교사 및 보조교사와 학교신문 편집부인 KSNEAN를 소개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기초준비 & 1-2과정(리더 김희현), 기초3-4과정(리더 이성희), 초급1~3과정(리더 주민정), 중급1~3과정(리더 강승연), 고급1~3과정(리더 김은아), 세종1~4과정/성인-기초 & 초급과정(리더 남일 교장), 작문교육1~6부(리더 이정설), 음악/문화교육부(리더 양수연), 보조교사회(리더 박현아), 학교신문 편집부(서가은, 이유나) 10개 부서로 구성돼 있다.

지역 최대 규모로 개교 46주년을 맞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오는 11월 ‘한글동화 구연 & 동시암송대회’와 12월로 예정된 ‘



2021년 9월 18일에 있었던 개학식 모습



(좌) 거북이반 수업모습 (우) 성인반 수업모습



꿈을 그린 노래대회’가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 한글지도는 물론 미술/음악 교육부 교사를 모집한다. 지원을 원하는 한인들은 전화 (508) 523-5389, 이메일

(koreanschool.ne@gmail.com) 또는 학교 홈페이지(www.ksneusa.org)를 통해 연락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산 자가진단 코로나 테스트 키트 판매 합니다. 개당 \$50”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제주 4·3사건, 미국서 공론화 첫 발걸음

재미4.3기념사업회·유족회 첫 국제 포럼 개최
 '월든'의 평화 메세지로 미국사회 공감... 미국의 사과와 진상규명 촉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국인들은 제주 4·3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 및 전문가들이 모여 제주 4·3 사건을 미국에서 공론화할 방안을 논의하는 첫 번째 국제 포럼이 오는 9월 26일 일요일에 줌 화상회의로 열린다.

이번 국제포럼에는 월든 코리아 청년 기획 위원들이 제주 4·3 공동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외에도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맥켄 교수, 경희대 이택광 교수, 터프츠 대학 국제외교 대학원의 이성윤 교수 등이 연사로 나선다.

특히 이성윤 교수는 제주도에에서의 대학살을 이승만의 '메시아 콤플렉스'로 해석하

고미 군정이 이승만과 함께 4·3사건의 공범임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택광 교수는 제주 4·3 사건을 국제 사회 냉전의 시작점으로 보고 4·3의 문제를 국제적인 담론으로 이끌 방안들에 대해서 논하며 데이비드 맥켄 교수는 한국의 저항 문학을 통해 미국인들이 4·3사건을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재미4.3기념사업회·유족회 양수연대표는 "미국 사회에 4.3사건의 본질을 알리기 위해서는 유족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이상의 정교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에 평화와 자립을 실천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을 차용한 '월든 코리아'를 4·3을 알리는 학술 문화 플랫폼으로 설정하여 미국사회가 4·3 사건을 평화와 인권의 문제로 공감할 수 있게 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지난 7월 미국에서 처음 출범한 재미4.3기념사업회·유족회는 4·3사건의 진상을 미국 사회에 알리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 선발하여 '월든 코리아 청년 기획위원회'로 임명하고 활동에 착수했다.

재미4.3기념사업회유족회는 해방 이후 1950년까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미군정 보고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영문 저널을 정기 발행하며 또한 미국 전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The History You Never Heard(당신이 듣지 못했던 역사 이야기)" 강의 시리즈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월든 코리아 국제 포럼은 재미4.3기념사업회·유족회가 주최하고 제주4·3기념사업회가 주관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후원한다.

포럼은 9월 26일 일요일 8시부터 10시(미동부기준)으로 2시간동안 줌 화상회의로 열리며 소셜미디어에서도 생중계된다. 줌 링크는 재미 4.3기념사업회·유족회 홈페이지(43jeju.com)이나 월든 코리아 홈페이지(영문사이트, waldenkorea.org) 메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info@43jeju.com)로도 요청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AARP 행동하는 기업가 대회 개최

1만 달러의 상금, 피플즈 샤크(The People's Shark)의 데이몬드 존(Daymond John)과 대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AARP(미국은퇴자협회)는 창업 지망자와 45세 이상의 소상공인의 벤처사업 및 목표 증진을 돕기 위해, 세 행동하는 기업가 대회(Make Your Move Entrepreneurship Contest) 개최를 실시한다.

9월 9일부터 10월 22일까지 열리는 이 대회 참가자들은 전문적인 목표와 팬데믹을 통해 직면한 도전을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

두 명의 대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만 달러의 상금과 ABC의 샤크 탱크(Shark Tank)의 주역이며, 푸부(Fubu)의 설립자이자 CEO인 데이몬드 존(Daymond John)에 일대일 화상 회의의 기회가 수여된다. 두 명의 1등 수상자에게도 각각 천 달러의 상금과 데이몬드 존과 일대일 화상 회의의 기회가 주어진다.

참가자들은 또한 가입만으로도 추첨을 통해 천 달러의 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식 규정, 경품 설명 확인과 경품 추첨 참여는 <https://sweeps.aarp.org/makeyourmove2021/>에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추석엔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행사기간 : 9/10(금) ~ 9/26(일)



요즘이니까
면역력
 추석이니까
정관장

요즘처럼 면역력이 소중한 때가 없습니다.
 추석처럼 정관장이 반가울 때가 없습니다.

영업시간안내
 10:30am - 6:30pm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추가증정



홍삼 달임액,
 에브리타임 **2개** 구입시
추가 10포 증정



\$250 이상 구입시
이네제틱 20포 증정



**최고의 홍삼제품으로
 가족의 면역력을 지켜주세요!**

원료 관리 단계부터 제조, 제품의 완성 단계까지 8년의 시간동안 290여 가지가 넘는 항목의 안정성 검사를 7회에 걸쳐 시행합니다.

면역력의 힘! 정관장 홍삼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전화로 주문후 집에서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뉴욕 클래식 플레이어즈와 장유진, 브래넌 조

조던홀 콘서트 성황리에 종료 김유경 디렉터의 마지막 작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우상원, 편집부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이사장 정정욱, 회장 김병국)가 주최한 <라이징 스타즈 2021 콘서트>가 지난 9월 18일 (토) 뉴잉글랜드 음악원의 조던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팬데믹 이후 예술협회가 재개한 첫 공연이었던 이번 연주에는 약 25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하여 아름다운 음악을 즐기고 감동을 공유했다.

이번 연주를 통해 뉴욕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인 지휘자 김동민 씨가 자신이 설립하여 10년 동안 이끌어 온 젊은 실내악단인 뉴욕 클래식 플레이어즈(NYCP)와 함께 보스톤 무대에 데뷔하였으며 주목받는 젊은 연

주자들인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 첼리스트 브래넌 조, 비올리스트 조던 박, 라몬 까레로-마르티네즈, 엔치 첩이 협연하였다.

객석에서는 연주 시작 전부터 오라간만에 만나는 지인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훈훈한 모습들이 눈에 띄었으며, 유기준 총영사도 일찍 도착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참석자들과 따뜻한 담소를 나누었다.

첫 곡인 로시니의 <현을 위한 소나타 1번 G장조>는 모차르트의 곡을 닮은 서정적인 부분과 로시니 특유의 빠르고 경쾌한 패시지가 특징이었는데, NYCP와 김동민 지휘자는 리듬감을 살린 산뜻한 연주를 보여주었다.

두 번째 곡은 한국계 작곡가 제임스 라(James Ra)의 <세 대의 비올라와 현을 위한 협주곡>이었다. 이 곡은 NYCP가 위촉한 곡으로, 하루 전인 9월 17일에 뉴욕에서 초연되었으며 이날이 보스톤 초연이자 두 번째 연주였다.

잘 알려진 찬송가 '오신실하신 주'의 화음 진행을 바탕으로 한 이 곡은 작곡가의 깊은 신앙심과 영성이 녹아 있는 네 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올리스트 조던 박, 라몬 까레로-마르티네즈, 엔치 첩은 각자의 개성을 발휘하면서도 서로의 음악적인 대화를 통해 비올라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교들을 보여주었다.

마지막 곡인 브람스의 <이중 협주곡>은 본래는 오케스트라 곡이지만, 이날은 백유미가 편곡한 현악 실내악 버전이 연주되었다. 콘서트 아티스트 길드 콩쿨 및 다수

의 대회에서 우승하였고 현재 이스턴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과 세계적인 솔리스트로 단단한 입지를 쌓아가고 있는 첼리스트 브래넌 조는 성숙한 음악적 내면 세계를 드러내며 놀라운 호흡과 교감을 아낌없이 보여주었다. 뛰어난 음향으로 명성이 높은 조던홀에서 때로는 화려하게 때로는 깊이 있게 울려 퍼지는 젊은 연주자들의 혼신을 다한 연주에 오라간만에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은 마음껏 감동하고 박수하며 환호를 보냈다.

관객으로 온 전경희 씨는 장유진과 브래넌 조의 앙상블 호흡이 놀랍도록 훌륭하고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으며, 미국인 수잔 씨 부부는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찾은 공연장에서 연주가 너무나 좋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지난 9년 동안 보스톤 한미예술

협회 음악위원회의 디렉터로 일했던 김유경 씨는 자신이 디렉터로서 기획한 마지막 프로그램을 통해 팬데믹 이후 공연의 문을 열게 된 것과 뛰어난 젊은 음악가들을 좋은 무대에 올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번 공연에 특별히 많은 학생들과 청년층이 청중으로 와 준 것이 정말 고무적이었고 큰 보람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예술협회는 현재 노스이스턴 대학교에 재직 중인 소프라노 나유선 씨를 차기 음악위원회 디렉터로 선정했으며, 앞으로 더욱 참신한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 관중들에게 다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팬데믹 이후의 공연 재개 그리고 젊은이들의 뛰어난 재능과 열정이 돋보였던 이 공연은 주보스턴 대한민국의 총영사관과 매사추세츠 한인회가 함께 후원하였다.

bostonkorean@hotmail.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공인 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KCSB THE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PRESENTS

DR. SANGYOUB PARK DR. YONGCHAN KWON DR. HENGHEE KIM

KOREAN HERITAGE SYMPOSIUM
EACH EVENT WILL BEGIN AT 7:30 PM (EDT)

SEPT 9 HAN-BIK (KOREAN FOOD) TASTING KOREA - KIMCHI DIPLOMACY
OCT 7 HAN-OK (KOREAN ARCHITECTURE)
NOV 4 HAN-BOK (KOREAN DRESSES) DRESS OF KOREAN IDENTITY

Via Zoom and Facebook live-streaming services
Register to join the Zoom sessions @www.kcsboston.org

한옥을 주제로 열리는 코리언 헤리티지 온라인 심포지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전통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그 가치와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코리언 헤리티지 심포지엄의 제 2강 (한옥)이 오는 10월 7일 (목) 저녁 7시30분(동부시간)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총 세 번의 강의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보스톤 한미예술협회가 주최하고 있으며, 특별히 이번 강의는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와 협력하여 (뉴잉글랜드 포럼)으로 공동 진행된다.

2010년에 안동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이 유네스코 월드 헤리티지 사이트로 지정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권용찬 박사가 강의를 맡아, 사람의 생활을 위한 좋은 환경으로서 한옥이 제공하는 전반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줄 예정이다.

권용찬 박사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 주거사와 주거문화의 변화에 대해 연구해왔다. 하버드 대학교 디자인 대학원에서 비징 펠로우로 연구활동을 계속했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건축 디자인 석사를 마쳤다. 현재 보스톤의 엘쿠스 만프레디(Elkus Manfredi Architects)에서 근무하며 건축 및 도시 설계 실무 경험을 쌓고 있다. 저서인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 (2012)는 2013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은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https://www.kcs-boston.org>) 웹사이트에서 등록하거나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문회 (snuane@gmail.com)로 연락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한 시간 정도의 강의 후에 질문과 답변 시간이 이어지며 영어로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백신 접종 자격이 없는 어린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기존에 국가별 상황을 중심으로 적용하던 제한 조치를 대폭 수정한 것이다. CDC는 이와 함께 입국자들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포함한 정보 수집을 의무화한다. 이는 추후 접촉자 추적을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미국은 유럽 26개국을 비롯 영국, 아일랜드,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란, 브라질 등 33개국의 경우 대부분 입국이 제한되었다. 이들 33개국 이외 국가의 경우 현지에서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33개국에 적용되던 제한 사항을 없애는 대신 백신



11월부터 미국 입국시 코로나 백신접종 · 음성확인 의무화

▶▶1면에 이어서
화 조치가 됐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에 머물다 돌아오는 미국인의 경우 귀국 항공편 출발 하루 전 이내에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고, 도착 후에도 하루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조치는 백신 접종 자격이 없는 어린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기존에 국가별 상황을 중심으로 적용하던 제한 조치를 대폭 수정한 것이다.

CDC는 이와 함께 입국자들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포함한 정보 수집을 의무화한다. 이는 추후 접촉자 추적을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미국은 유럽 26개국을 비롯 영국, 아일랜드,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란, 브라질 등 33개국의 경우 대부분 입국이 제한되었다. 이들 33개국 이외 국가의 경우 현지에서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33개국에 적용되던 제한 사항을 없애는 대신 백신

접종 완료와 음성 확인 등 2가지를 기준으로 입국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이 어떤 백신을 입국 허용 대상으로 승인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자이언츠 조정관은 질병 통제예방센터(CDC)가 추후 어떤 백신을 허용할지 밝히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선 현재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의 사용이 허가된 상황이다.

한편, 자이언츠 조정관은 미국 국내 항공 여행의 경우 백신을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선 국내 여행 백신의 의무화 조치도 취할 수 있다며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여행완화 조치는 유럽연합(EU)과 영국을 달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과정에서 유럽연합과 충분한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바이든 행정부와 결긋러워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스처라는 분석이다.

당장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환상적인 진흥책"이라고 평가했고, 규제 완화를 요구해온 항공·여행업계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은 지난 6월 미국인의 여행을 개방했다가 지난달 격리나 검사 요건을 면제해주는 대상에서 미국을 다시 제외했다. CNN은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당시 이 결정을 부채질했다는 유럽 당국자의 발언을 전했다.

AP통신도 기존 규제는 미국보다 확진자가 훨씬 적은 영국, EU의 동맹국 간에 특히 불만사항이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뉴욕 유엔총회에서 일부 유럽 정상들과 회담을 앞둔 시점에 완화 조치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는 육로 이동이 봉쇄돼 있다. 백악관은 이 조치를 10월 21일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이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 에서 민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께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경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Michelle Han CPA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팬데믹 동안 MCAS 점수 폭락, 인종별 편차 극심

일부 부촌 제외 대부분의 학군 성적 큰 폭 하락 인종별, 아시안 백인에 비해 흑인, 히스패닉 폭락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주 전역에서 실시하는 엠캐스(MCAS, 매스전 체평가제도) 점수가 지난 2년 동안 급격히 하락해 팬데믹 이후 수업 부족이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드러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성적에 비해 가장 많은 하락을 기록한 과목은 수학이었다. 3-8학년 학생들은 16%, 10학년 학생들은 7%가 하락했다. 반면 영어 점수는 3-8학년의 경우 6%가 떨어졌고 10학년의 경우 오히려 3%가 올랐다.

지난 봄 실시된 엠캐스 테스트는 지난 2년 동안 처음 실시된 것으로 그동안 많은 교육 전문가들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됐다. 팬데믹으로 인해 약 1년 여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던 2020년에는 시험이 취소됐으나 주 교육부는 연방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번 시험을 부활시켰다.

주정부는 이번 시험을 실시하면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성적이 나쁜 학교에 불이익을 주거나 책임을 지우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시험의 주 목적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의 학습이 미진했는지 여부와 실력의 저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팬데믹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던 가족들의 경우가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 엠캐스 참가자 수는 46만 공립학교 학생들이었으며 이들은 학교에서 집에서 시험을 치렀다.

제프리 라일리 주 교육부 장관은 매사추세츠 모든 학군에서 문제가 도출됐다"고 말하고 "교사들은 정말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학

교지도부와 함께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잘 보충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엠캐스 점수 하락은 전국 추세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보스톤글로벌에 따르면 버지니아, 텍사스, 미네소타를 포함한 미국 내 다른 주들은 급격한 점수 하락 현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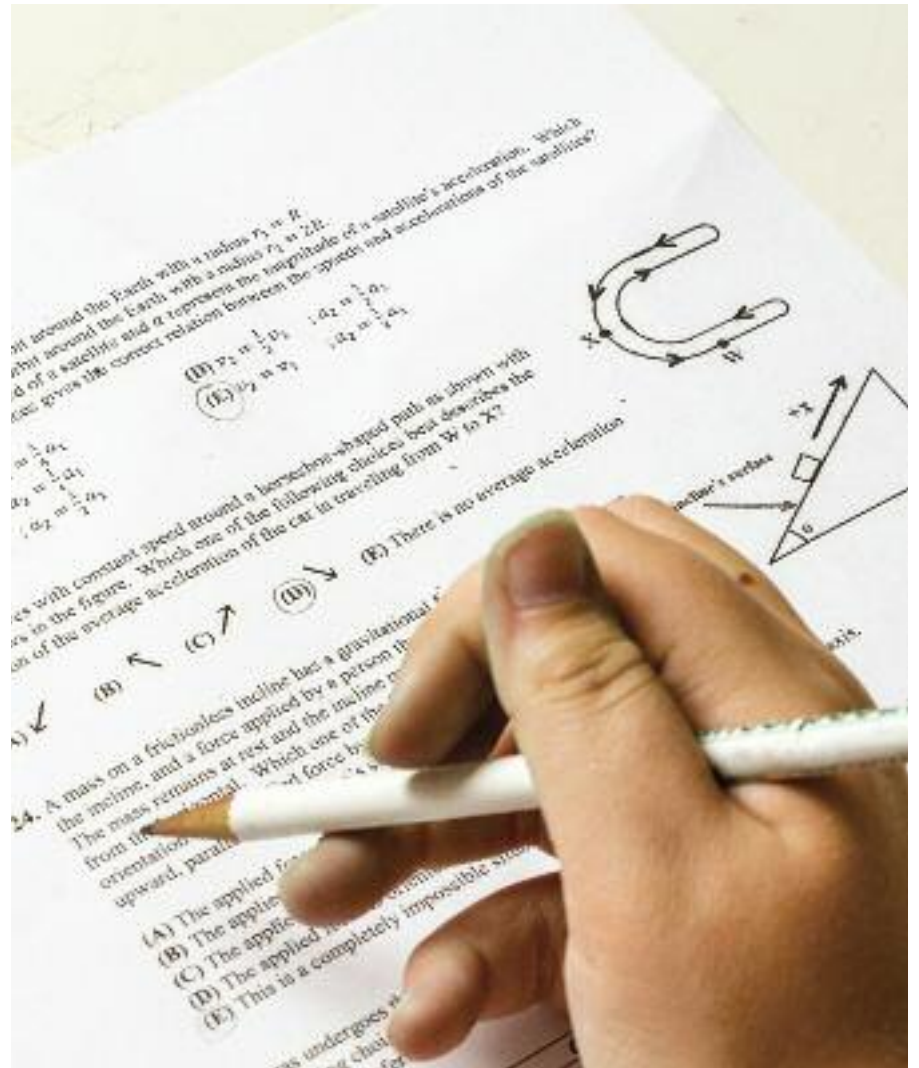
엠캐스 전체적으로 보면 3-8학년 학생들 46%가 영어에서 기대 학습수준을 넘어섰으며 수학에서는 33%만 기대 학습수준을 넘어섰다. 10학년의 경우 64%가 영어 기대 수준을 넘었고 수학에서는 52%가 기대 수준을 넘었다.

매사추세츠에는 가장 현격한 문제는 인종별 학력 수준 편차다. 흑인학생 3학년 영어의 경우 32%가 기대 수준을 초과했으나 2019년에 비해 6%나 떨어진 수치다. 라틴계 학생의 경우 28%만 기대 수준을 초과해 2019년보다 10% 떨어졌다.

반면 백인 학생들의 경우 61%가 기대 수준을 초과해 과거에 비해 단 2%만 하락했다. 아시안 학생의 경우 67%가 기대 수준을 넘어 여전히 다른 인종학생에 비해 뛰어난 면을 보였으나 이는 2019년의 72%에 비해 5%나 떨어진 수치다.

부모들은 각 학생 개인의 엠캐스 점수를 9월 30일 이후에 받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학군별로 볼 때 일부 부촌을 제외하고 주 전체적으로 큰 폭의 점수하락을 기록했다. 리버 3-8학년 수학은 2%나 떨어졌고 린도 24%, 로렌스 21%로 떨어졌다. 대부분의



교외 학군들은 비교적 양호했지만 린필드, 밀턴, 그리고 윈체스터 등이 20% 가까운 감소를 기록했다.

일부 차터스쿨의 경우 가장 심각한 편차의 성적저하를 기록했다. 락스베리 프렘은 42%, KIPP 보스톤은 36%, 보스톤프렘은 35%의 하락을 기록했다.

학생들의 성적저하는 이미 미국내 몇차례 연구로 예상됐던 결과다. 특히 수학에서 학

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수학이 점차적으로 복잡한 계산 기술 기초 위에 다른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점과 부모들이 아이들의 어려운 문제를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7월 맨킨지앤컴퍼니의 분석에 따르면 학생들은 수학에서 약 5개월 가량 뒤쳐져 있으며 독해의 경우 4개월이 뒤쳐진 것으로 보고됐다.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래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요가송의 5분요가

유튜브 검색창에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역대급 핵시원한 하체 스트레칭 10분

사람의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듯, 사람마다 체형, 체질도 저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을 찾는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특히 저녁만 되면 다리가 잘 붓는 체질, 살이 찌면 하체에 유독 살이 더 잘 붓는 하체비만 체형(하비족)이거나 허리와 골반통증으로 고생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하체 스트레칭 루틴을 소개해드립니다. 자기전 10분만 투자해 하체 스트레칭 유튜브 영상을 따라 꾸준히 해보세요. 타고난 체형과 체질, 만성 허리통증도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을 검색하신 후, 최근 영상에서 역대급 시원한 10분 스트레칭 편을 찾아 꼭 따라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설정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울 자세는 Gate+ Thread the Needle Pose입니다.

STEP 1. 테이블 자세에서 오른발을 옆으로 뻗어 줍니다.



STEP 2. 두손으로 바닥을 짚고 앞뒤로 움직이면서 허벅지 안쪽의 자극을 느낍니다.

STEP 3. 왼팔을 오른 겨드랑이 밑을 통과해 주고 오른 머리 옆면을 매트에 댑니다.

POINT! 이때 목이 불편하다면 영상에서와 같이 팔뚝을 만들어 머리를 받쳐주셔도 좋아요.

두번째 자세는 Pigeon + Thread the Needle Pose입니다.

STEP 1. 테이블 자세에서 왼발을 왼손 바깥쪽으로 보낸 Lizard Pose에서 발을 오른쪽으로 보내줍니다. (영상 참조)

STEP 2. 두 골반의 균형을 찾아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POINT! 엉덩이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STEP 3. 비둘기 자세에서 오른손을 왼겨드랑이 밑을 통과해 머리 옆면을 바닥에 내리고 트위스트 해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스트레칭을 매일 하다보면, 하체의 군살 제거는 물론, 골반교정, 자세 교정의 효과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기전에 하시면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 숙면에도 도움이 되구요. 해보시고 궁금한 점은 영상 밑 댓글로 남겨주시구요, 유튜브도 좋지만 1!로 개인지도 받듯이 저의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라이브 줌요가 수업도 적극 추천해드려요.

라이브 ZOOM 무료 체험 온라인 클래스 현재 매주 온라인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수업을 진행하고 있구요.

건강과 아름다움, 자신감과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게 될 더없이 좋은 있는 기회이니 1회 무료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 로 본인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COMPASS

Our mission is to help everyone find their place in the world.



Why Compass 왜 컴파스인가?

- 부동산 서비스와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프롭테크(PropTech) 기업
부동산(property) + 기술(technology) = 컴파스 (Compass)
- 부동산 구매자와 에이전트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매물 검색과 개인화된 매물추천, 부동산 거래 관련 상호 커뮤니케이션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통합 부동산 플랫폼 제공
-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5000억원 투자한 회사
- 저스틴 월슨 비전펀드 선임 투자전문가 “컴파스는 주택 구매자와 중개업자를 연결해주는 차별화된 기술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 이 분야에서 입지가 탄탄한 기업”
- 2019년 판매량 기준 보스턴 및 케임브리지 1위 (Source: MLS)
- 750+ Agents in Greater Boston
- Operates in 20 U.S. markets including New York, Philadelphia, Boston, LA, Chicago, Washington D.C., Dallas, etc.

Agent Introduction 에이전트 소개

안녕하세요, 제이슨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미국 최고의 부동산 회사인 컴파스와 함께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부동산 토탈 서비스를 가지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컴파스에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과 최고의 정보기술과 함께, 헌신 (dedication), 믿음 (Trust), 결단력 (Determination) 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거래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mpass 와 함께 차원이 다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슨 드림



Jason Jeon 제이슨 전
Realtor®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Compass Services

Compass Concierge 컴파스 컨시어지

컴파스 컨시어지는 셀러에게 무이자로 주택 개선 비용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페인트, 바닥, 스테이징 등 집 리모델링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가치를 최대한 올려 더 빠르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Compass Coming Soon 컴파스커밍순

compass.com 에 부동산을 시장에 출시 될 예정임을 사전에 광고하여, 사이트를 검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Compass Bridge Loan Services 컴파스 브릿지론

컴파스 브릿지론은 최대 6개월의 브릿지대출의 대출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브릿지 대출 기관인 Freedom Mortgage, Better.com 의 경쟁력있는 이자율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하버드대, 미국 대학 순위 조사서 5년 연속 1위

WSJ·THE 대학평가...동북부 '아이비리그'가 상위권 싸움이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하버드대학교가 미국 내 대학 순위에서 5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 시간) 대학 평가 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와 함께 올해 미국 대학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하버드대가 올해도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스탠퍼드대는 지난해 4위에서 올해 2위로 순위가 두 계단 상승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은 한 계단 하락한 3위, 예일대는 4위를 기록했다.

또 브라운대가 6위, 프린스턴대 8위, 코넬대 11위, 펜실베이니아대 12위, 다트머스대 13위, 컬럼비아대 16위 등 아이비리그로 불리는 8개 사립 대학 모두 20위 안에 들었다.

2위를 차지한 스탠퍼드대와 듀크대(5위), 캘리포니아공대(7위), 노스웨스턴대(공동 9위)를 제외하고 상위 10개 대학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미 북동부 학교들이었다.

WSJ과 THE의 대학 평가는 4개 분야의 15개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졸업생들의 급여 및 학자금 상환 수준 등 '학생 성과'에 40%, 수업에 대한 대학의 투자 수준 등 '학문적 자원' 분야에 30%, 학생들이 자신이 배운 지식으로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자 하는지 평가하는 '학생 참여'에 20%, 학생과 교수의 다양성을 포함한 '학습 환경' 분야에 10%의 점수가 배정된다.

최우수대학
1. Harvard University
2. Stanford University
3.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4. Yale University
5. Duke University
6. Brown University
7.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8. Princeton University
9. Johns Hopkins University and Northwestern University (tied)

학생 학업 성취도
1. Princeton University
2. Yale University
3. Duke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and Stanford University (tied)



10. Cornell University
11. Dartmouth College
12.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and The University of Chicago (tied)



하버드 입학차별 소송에 2천5백만불 사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하버드 대학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법무부의 조사까지 촉발했던 입학차별 정책에 대한 법정다툼에서 무려 2천5백만 불을 쏟아 부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톤비즈니스저널에 22일 보도에 따르면 하버드의 소송 방어에 들인 금액은 이 대학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드러났다. 하버드는 주리히 어메리칸 보험사(Zurich American Insurance Co)가 해당 대학의 입학소송 비용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보스톤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버드 입학차별 소송은 2014년 공정입학을 위한 학생(Stu-

dents for Fair Admissions)그룹이 하버드대학을 상대로 학생들을 인종과 국적을 바탕으로 차별했으며 특히 아시아 학생이 주 타겟이었다며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트럼프 산하 법무부는 2017년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하버드는 보스톤 연방지법과 연방순회고등법원에서 승리를 거뒀다. 현재는 연방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 중에 있다.

하버드는 어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의 한 소속회사인 주리히에 보험을 가입했으며 주리히 측은 최대 1천5백만불을 지불해야 하는데 너무 늦게 이 비용을 청구했다며 지불을 거부했다고 소장에 적었다.

bostonkorean@hotmail.com

마음대로 골라본다

\$24⁹⁹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불로 변경)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⁹⁹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

\$34⁹⁹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

\$39⁹⁹

티보 대리점 모집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신규 출시된 애플 아이패드

전기차 혁명 부를까... "주유시간에 배터리 충전" 신기술 공개

영국 전기차 전시회서 공개... "기술 상용화 시 전기차 혁신

(샌프란시스코 =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기존 내연기관차에 연료를 채우는 시간 정도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배터리 기술이 23일(현지시간) 공개될 것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2일 보도했다.

과워트레인 기업 말레는 새로 개발한 리튬 탄소 전지가 급속 충전 콘덴서의 특성과 전통적인 리튬 이온 파워팩의 특성을 결합하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밝혔다.

새 기술이 빠르면서도 충분한 양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이 실현 가능한 것으로 입증되면 전기차 충전을 위한 오랜 기다림을 없앨 것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설명했다.

새 기술은 영국 베드퍼드셔에서

열리는 전기차 전시회에 공개될 예정이다.

말레 연구팀은 새 기술이 전기차의 점유율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자신했다.

말레의 연구 책임자인 마이크 배셋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에 배터리가 충전되면 전기차에 대한 주요 걱정거리인 주행거리 문제가 대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말레는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모페드(모터가 달린 자전거)로 조사한 결과 25km를 이동하기 위해 500kW 전력으로 30분의 충전 시간이 필요했다.

반면 말레가 개발한 더 작은 배터

리는 90초 사이에 충전됐다. 다만, 배셋은 아직 새 기술이 아직 개념 단계라고 말했다.

새 기술 개발에 참여한 기업 알로트 로프 에너지의 기술 이사인 피트 윌슨은 "기존 배터리와 같은 용량 이면서도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새 배터리 기술에는 희토류가 들어가지 않는다.

버밍엄대의 데이비드 베일리 교수는 "충전 시간은 큰 문제이고 많은 사람에게 전기차의 선택을 유보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면서 이 기술이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입증될 수 있다면 전기차 혁신에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lkbin@yna.co.kr



캐시 우드(Cathie Wood) 아크 인베스트(Ark Invest) 대표 겸 최고 투자 책임자

캐시 우드 "테슬라 주가 4배 되면 매도...미 증시 거품 아냐"

테슬라 목표주가 3천달러 유지... 혁신 플랫폼 급성장론 고수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운섭 특파원 = '돈나무 언니'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미국 투자자 캐시 우드가 테슬라 주가가 앞으로 4배가 되면 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드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2021 모닝스타 투자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23일(현지시간) 경제 매체마켓워치 등이 보도했다.

그는 "만약 우리 전망이 바뀌지 않고 내년엔 테슬라 주가가 3천 달러가 된다면 제 추측으로는 우리는 테슬라 주식에서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의 22일 종가는 751.94달러로, 우드는 앞으로 테슬라 주가가 4배가 되면 팔겠다는 견해를 밝힌 셈이다.

우드는 고성장 기술주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온 상장지수펀드

(ETF) 운용사 '아크 인베스트'를 설립했으며 테슬라 주가가 2025년까지 3천 달러를 돌파해 시가총액 3조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테슬라 주가 상승과 전기차 시장 성장의 근거로 배터리 팩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내년에는 전기차 평균 가격이 휘발유 차가 격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꼽았다.

그러면서 우드는 미국 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증시 거품론도 부정했다.

그는 "우리는 거품 속에 있지 않다"며 전기차, 로봇 공학,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 플랫폼의 급속한 성장 속도가 주식 시장을 앞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신신마트 당일배송

배달 서비스

EXPRESS DELIVERY

각종 고기와 반찬, 쌀, 라면, 야채, 과자 뿐만 아니라 신선한 생선회(Mr. Sushi) 등을 1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당일 배송해 드립니다.
\$100불 이상 / 배송비 10불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Free Delivery 해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에 정직합니다

정성들여 만든 신신 스페셜

얼큰한 해물 짬뽕국물 (\$7.99)
순두부 (\$7.99)
육개장 (\$9.99)
싱싱한 홈메이드 신신만두 (\$25.00)
(고기만두, 김치만두)

싱싱한 스시, 사시미 배달
즉석 김밥, 홈메이드 만두 등
당일 배송 가능

ALL 유기농 늘푸른 농장

한국포도 \$19.99/pack, \$36.00/box
메주콩, 검정콩 \$29.99/5LB
배즙, 포도즙, 대추즙 \$29.99/25packs
마른대추 \$29.99/1bag
고춧가루 \$69.99/3.8LB

'헝다 디폴트 위기' 속 침묵하는 중국... "국유화 검토"

국유기업에 지분 매각 시나리오 부상... "3개 법인 분할 후 부동산 부문 국유화 검토" '시스템적 위기' 조짐 뎀 개입... "당국, 재무 분석하며 대비 중"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부채가 350조원대에 달하는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테)의 유동성 위기가 중국을 넘어 세계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하는 불안 요인으로 급부상했지만 중국 당국은 이상하리만치 침묵을 지키며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공동 부유' 국정 기조를 전면화한 중국 공산당이 장기 집권 기반 다지기 차원에서 고통이 따르더라도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가는 자금 차단에 나선 결과로 헝다 사태가 터졌다는 점에서 당국이 이제와 정책 기조를 바꿔 헝다 구제에 나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먼저 제기된다.

하지만 최악에 헝다가 파산해 실물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헝다를 위시한 부동산 업계의 위기가 은행권으로 본격 전이되는 조짐이 나타나면 중국 당국이 결국에는 개입해 부채 조정, 헝다를 국유기업에 인수시키는 방법으로 충격 완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공동부유' 목표 앞세운 중국... "시스템 위기 아니면 개입 안 해"

헝다 사태 불만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이나 관영 매체들은 아직 관련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

고 있어 현재로서는 당국이 즉각 개입보다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시장은 22일 열린 리커창(李克強)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 주목했다.

하지만 국무원은 회의 후 발표한 보도문에서 "경제 동향을 면밀히 추적·분석해 거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주기 사이의 정책을 미리 세밀하게 조정하고, 재정·금융·취업 정책의 연동성을 강화한다"고 언급했을 뿐 헝다 사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대신 중국 당국은 헝다의 파산까지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던지시던 상태다.

중국 공산당의 비공식 대변인 처럼 행사하는 후시진(胡錫進) 환구시보(環球時報) 총편집인은 최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서 헝다가 '대마불사(大馬不死·바둑에서 대마가 결국은 살길이 생겨 쉽게 죽지 않는 일)의 요행을 바라는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기업은 반드시 시장 방식의 자구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최고위 부호 중 한 명인 쉬자인(許家印) 회장이 설립한 헝다의 유동성 위기는 전기차, 생수 등 비핵

심 사업에 문어발식으로 진출한 헝다가 자초한 면도 있다. 하지만 당국이 작년 말부터 주택 가격 안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헝다는 결정적으로 유동성 위기의 벼랑 끝으로 몰린 것 역시 사실이다.

당국은 작년 말부터 선제적 금융 위험 제거와 주택 가격 안정을 목표로 삼아 부동산 개발업체와 주택 구매자들에게 흘러가는 자금을 강력히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사업 환경에 근본적 변화가 생겼다. 당국의 지침에 국유은행들은 신규 대출이나 차관을 꺼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은행은 만기가 오지 않은 대출까지 서둘러 회수에 나서면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 유동성은 급속도로 악화했다.

각 지방 당국이 주택담보 대출을 억제한 가운데 주택 구매 자격 제한 등 수요 억제책을 쏟아내면서 주택 구입 열기도 크게 가라앉은 상태다.

주택 가격 안정은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 시대 마련된 집단지도체제를 무력화하고 장기 집권 시대의 문을 열고자 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전면으로 앞세운 국정 목표인 '공동 부유'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따라서 설사 헝다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넘어 파산하는 지경에 이

르더라도 공산당과 시 주석의 집권 기반 다지기과 관련된 '큰 그림' 차원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 억제 정책이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디폴트 발생은 결국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amp;퍼어스(S&P)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시스템의 안정이 위험에 처하지 않는 한 헝다를 지원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중국 정부가 구제에 나선다면 부동산 분야의 고삐를 죄려는 당국의 캠페인을 약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중국팀장도 23일자 보고서에서 "헝다그룹의 파산 위험이 확대된 원인을 분석할 때 당국의 즉각적인 개입 가능성은 명분과 정책 배치 측면에서 매우 낮다"며 "달려쳐 등 디폴트 발생 용인, 사후적 그룹·부채 구조조정 개입 시나리오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 부분 디폴트→비핵심 사업 매각·채무 조정-국유기업 지분 인수 시나리오 부상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가뜩이나 중국 경기의 급속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실물·금융 분야에 걸쳐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헝다 사태를 마냥 손 놓고 있기만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중국 당국이 자국의 장기적인 '높은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산업의 부채 축소를 작심하고 추진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공교롭게도 헝다가 파산하도록 내버려 두기에는 시점이 좋지 않다.

중국이 부동산 산업을 겨냥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작년 말부터였다. 당시에만 해도 중국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

강하게 반등하던 때였지만 현재는 경기 흐름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인터넷, 사교육,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을 향한 공산당의 '정풍운동'식의 거친 규제로 인한 민영 기업 위축, 산발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원자재 값 급등, 반도체 품귀 등 산업사슬 병목 현상 등의 여파 속에서 최근 중국 경기는 급속히 둔화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또 중국 은행권의 전체 자산은 45조 달러(약 5경3200조원)에 달해 산술적으로는 350조원대의 헝다 부채가 은행권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일단 헝다의 디폴트가 현실화했을 때 은행과 채권 시장에 미칠 파장이 어디까지일지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로이터 통신은 "많은 금융 기관들이 직접 대출 또는 채권 보유를 통해 헝다에 노출되어 있고 일단 디폴트가 나면 하이일드(고수익) 채권시장에서 투매가 일어날 것"이라며 "이코노미스트들은 헝다 문제가 리먼 브러더스급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베이징의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확실히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결국에는 헝다 사태로 8천여기에 달하는 협력업체의 줄도산, 수십만명의 고용 불안, 금융 위기 조짐이 나타나게 된다면 중국 당국이 결국에는 개입해 부채 조정 또는 국유기업의 인수 등의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울러 시 주석이 내년 가을 열릴 20차 당대회를 통해 장기 집권의 문을 열고자 한다는 점에서 대규모 실업과 분양자들의 아파트 인수 불가 사태 등의 사회경제적 대혼란을 초래할 헝다 파산을 내버려 두기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있다.

보스톤 코리아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시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대장동에 초강경...이재명 '직선 본능', 약될까 독될까

“1원도 받지 않았다. 받았으면 대선 후보 사퇴” 강경대응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수연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의 흑대응 과정에서 '직선적 본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추석연휴 내내 직접 대장동 의혹 공방의 전면에서 초강경 발언을 거듭했다.

의혹에 대해 "1원이라도 이득을 봤다면 사퇴하겠다"고 일축한 데 이어 비판자들을 향해서는 역공을 가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언론, 토건 세력을 하나로 묶어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 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전부 공공 환수한다 해도 반대를 못 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관련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선 "중범죄", "집단학살범죄 이상" 등 격한 표현을 동원해 비난을 퍼부었다.

당내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도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집값 폭등으로 예상 개발이익을 두 배 이상으로 만든 당사자"라고 책임론을 덧씌우며 반격했다.

언론의 의혹 제기를 5·18 당시 언론의 '폭도 난동' 보도에 빗대기도 했고, 당내 특정 인사들을 향해 "우리 안의 수박 기득권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호남 모독'이라는 이 전 대표 측의 반격을 부르기도 했다.

이 지사는 앞서 '무료 변론' 논란 와중에 윤영찬 의원을 '흑색선전 범죄'라고 비난하거나, 이천 화재 당시 '떡방'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박

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집중 공세의 표적이 될 때마다 전면에서 강경 발언을 내놓곤 했다.

특유의 직설적 화법으로 의혹을 정면 반박하는 이 지사의 스타일이 대장동 의혹이라는 악재를 만난 상황에서 다시 발현된 셈이다.

이런 스타일의 득실을 두고는 안팎의 평가가 엇갈린다.

상대의 공세를 잠재우는 것은 물론이고, 쏟아지는 의혹에 숨지 않고 정면 대응함으로써 자신감을 보여줘 지지층을 결속할 수 있다.

특히 당내 경선의 승부처인 호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지사가 유독 이번 의혹에 강력히 대응하는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의혹을 충실하게 해명하기 보다는 정치적 역공에만 몰두한다는 인상을 심어줘 관망 중인 이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상대와 입씨름이 격화되면 그 과정에서 새로운 논란이 커지는 등 공방이 새로운 양상으로 확산할 리스크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수박" 논란 등 의도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표현들 자체가 좀 우려스러운 면은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전혀 문제없다. 1원도 받지 않았다"는 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방식의 대응으로 좋은 방식은 아니다"라며 "아직은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 만큼, 국민들은 더 나오는 내용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출마 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정면 돌파한 만큼 최소한 지지층 추후 의혹이 정리된다면 오히려 강 반면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에서는 박수를 받는 것"이라며 "중도 고한 지지층으로 견인할 수 있다"고 교수는 "명확하고 간명하게 정리하 층은 지지 철회가 아닌 유보인 만큼 말했다.

대장동 특검 꺼낸 야당... "뿔뿔하면 왜 피하나"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전명훈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쌍끌이로 제출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경찰과 검찰 수사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만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이번 사안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도입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지사 측이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해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소모대선 안 된다'며 거부 입장을 밝히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의석수(104석)의 한계가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론전으로 특검과 국정조사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되거나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본회의에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 국정조사 요구서의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하면 제출할 수 있지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한 특위 계획서는 재적 과반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특검과 국정조사 모두 과반 의석(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통과가 어렵다. 도입이 무산되더라도 부동산 특혜 의혹을 놓고 이 지사와 여권을 모두 겨냥한 공세를 이어갈 수 있어야 당으로선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SEP. 24th - SEP. 30th, 2021

H 마트와 함께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몸의 거리는 넓히고, 마음의 거리는 좁혀야 할 시간. H 마트 고객분들과 직원분들의 안전을 위해 6피트 안전 거리를 확보해주세요!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 @hmart_ma

Join the H Mart Social Distancing Campaign, to help slow down the spread of COVID-19 for you and our H Mart family. Keeping 6 feet apart will bring us together again.



ZESPRI SunGold Kiwi 제스프리 썬 골드 키위 BOX \$24.99	Fuji Apple 후지사과 PREMIUM QUALITY LB \$1.49	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SILKEN/SOFT/FIRM 14-16 OZ/PKG \$1.29	Korean Melon 황금 사과기 참외 LB \$2.49	House Cucumber 하우스 오이 EA 2\$3 FOR
생강 Ginger LB \$1.49	White Cabbage 화이트 양배추 LB \$0.79	Idaho Potato 아이다호 감자 LB \$0.79	Kabocha 단호박 LB \$0.99	ROSHNI Peanut 로시니 땅콩 56 OZ PKG \$4.9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oneless Beef Ribeye Steak 생 등심 스테이크 10 UP/LB \$12.99	Fresh Beef Top Blade (Flat Iron) Steak 생 부채살 스테이크 LB \$10.99
Fresh Chicken Drumstick 생 치킨 드럼스틱 LB \$1.49	Frozen Cornish Hen 냉동 영계 LB \$2.49
Sliced Smoked Duck 훈제 오리 LB \$17.99	Marinated Pork Bulgogi 양념 돼지고기 LB \$6.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ozen Boiled Shell-on Abalone 냉동 정해연 완도 전복 6 OZ (5 PCS/PKG) \$14.99	Frozen Head-on Louisiana Shrimp 냉동 루이지애나 자연산 왕새우 10-15'S/LB \$6.99
TONGTONGBAY Frozen Cooked Mussel Meat 통통배 냉동 홍합살 1 LB/PKG \$3.99	SUHYUP Frozen Cleaned Rock Sole 수협 냉동 손질 가자미 150-200'S/LB \$3.99
SEVEN SEAS Salted Mackerel Fillet 세븐시즈 냉동 자반고등어 17.64 OZ (4 PCS/PKG) \$7.99	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 Fresh Scallop 생 조개눈 10-20'S LB \$12.99

SMART CARD MEMBER ONLY

H MART SMART CARD ONLY NISHIKI Medium Grain Rice 니시끼 쌀 15 LB \$17.99	H MART SMART CARD ONLY OTTOGI Jin Ramen 오뚜기 진라면 MILD/SPICY 4.23 X 18 EA/BOX \$10.99
H MART SMART CARD ONLY MAXIM Instant Coffee Mix 맥심 커피믹스 ORIGINAL/MOCHA GOLD MILD 100 STICKS/PKG \$12.99	H MART SMART CARD ONLY 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16.9 FL OZ X 6 EA/PKG \$9.99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쌀 15 LB \$12.99	THREE CRAB Fish Sauce 삼계 순멸치 액젓 24 FL OZ \$5.99	ARIZONA FARM Honey Powder 아리조나팜 허니 파우더 1 LB 2\$5 FOR	GOMPYO Wheat Flour 곰표 중력다목적용 밀가루 5.5 LB \$3.99	HOUSE FOODS Vermont Curry 하우스 버몬트 카레 MILD/MED. HOT/HOT/8.11 OZ \$2.99
FOODCELL Vermicelli (Asian Style Starch Noodles) 푸드셀 궁중당면 1.5 LB \$2.99	DONGWON Luncheon Meat 동원 런천미트 12 OZ 2\$5 FOR	HANSANG Seasoned Small Octopus 한상 동우 얼짱 꾸꾸미 1.43 LB \$16.99	HAIOREUM Imitation Crab Meat Sticks 해오름 게맛살 2.2 LB \$4.99	DONGWON Shrimp Cutlet 동원 통살새우가스 16.9 OZ \$5.99
ORION Turtle Chips/Peanut Ball Snack 오리온 꼬북칩/오징어 땅콩 2.82-3.45 OZ X 7 EA/BOX \$9.99	CHORIP DONG Honey Citron Tea 초립동이 유자차 2.2 LB \$4.99	SURASANG Earthen Bowl 수라상 머드 황토 독배기 L1D-2/3/4/5/EA - \$6.99-\$13.99 \$4.99-\$9.99	IT'S ME Organic Cotton Slim (Sanitary Pads) 잇츠미 유기농 슬림 S-23CM(14PCS)/M-25CM(14PCS)/L-28CM(12PCS)/OVERNIGHT-34CM(8PCS) \$3.29 ← \$4.49	Briangs Towel 브리앙스 타올 2매 40 CM X 80 CM 2 PCS/SET ← \$8.99 \$6.99

KOREA'S GREATEST GIFT, MADE FRESH IN AMERICA.

Flavorful Apples, Korean Hot Peppers, Delicious Cabbage... Just Some of the many better ingredients that make our TOBAGI Kimchi the one you crave. Find it exclusively at H Mart.

한국인의 자존심, 토바기 김치! 최고 품질의 재료들로 직접 맛있게 다듬어 만들어 더욱 맛있습니.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사장 나 원 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부사장 애나 정
617.780.1675
Boston Branch Manager
anna@bostonpremierrealty.com



이사 이 제 봉
781.654.5281
South Shore Branch Manager
jeblee@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OUR AGENTS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신 보 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 성 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 현 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이 준 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Rick Shin
781.530.0034
ricks@bostonpremierrealty.com



최 은 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이 영 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차 민 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김 원 태
617.620.8242
otk212@gmail.com



재키 형
617.795.6171
jackie@bostonpremierrealty.com



Kathy Eunsuk Song
413.313.4165
kathysong2019@gmail.com



주 희 정
617.831.6999
jessie@bostonpremierrealty.com



주 승 원
617.780.783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최 승 진
978.866.3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렌트전문 팀장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m@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황 수 진
617.538.6973
sujinhwang1@gmail.com



다이애나 김
617.271.2037
diana@bostonpremierrealty.com





PREMIER WORKS

좋은 사람들이 우리집처럼 여기고 정성껏 일하는 PREMIER WORKS. 각각 다른 레벨의 일에 맞는 인력이 투입되어서 비용을 절감합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인력이 공정 관리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합니다.

홈 리노베이션, 홈 익스텐션, 핸디맨잡, 배관, 전기, 난방, 커머셜/식당 디자인 시공.

“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a job well done. The floors look terrific! I know the project was a challenging one, but I'm happy to say you and your team more than met the challenge. In addition, a concern I've had with contractors is not following up with loose ends. I'm happy to report all follow up requests were completed in a timely manner. In short, I highly recommend and will continue to use Premier Works for all of my flooring needs!

Sincerely, Mr. M. Malden, MA ”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Property Management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건물을 관리해 드립니다. 건축가, 부동산, 건축시공 전문가들이 함께 관리 합니다. All size condo, single family, multi family, commercial, Hands Free, All in One Service

렌트비 관리, 유지관리, 테넌트관리



Premier Realty Group
617.515.1162
info@bostonpremierrealty.com

WEEKLY SPECIAL



10 Nouvelle Way

Listed Yesterday,
Offer Accepted Today !!

Connecting Business & Marketplace to Christ

KCBMC

보스턴 지회 창립식

Boston Chapter Inaugural Ceremony

Sat. 09.25.2021 03:00 PM

설교: 최진용 목사님

뉴잉글랜드지역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보스톤 한인교회

Korean Church of Boston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KCBMCBOSTON@gmail.com

RSVP: 781-640-9898





간편하고 신속한 주택 융자

안녕하세요, 켈리 김입니다. 개인주택을 꿈꾸는 모든 분들은 자신의 여러 상황 때문에 개인주택 소유의 꿈을 접기도 합니다. 20년간 겪어온 많은 모기지 대출 경험으로 완벽한 대출매칭을 설계해 드립니다.

현금 인출	모기지 재 융자	후회없는 최상의 결과로 만족시켜 드립니다.
낮은 이자율	사전 승인	

상담 및 신속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연락주세요.

617.733.5014

Testimonial

저는 이분 아니었으면 집을 장만 못했습니다.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집 장만. 저희 담당 리얼터 분이 이런분은 없다면서 소개해준 켈리님 정말 저는 정말 행운아였습니다. 급하게 시작한 상태이고 준비가 미약한 제 상태에서 괜찮은 집을 찾았지만 주변에서 안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제 상황을 맞춰서 시간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켈리님을 보고 만나지도 않았고 느껴지는 강한 믿음!! 이분은 정말 이분야에서 정말 최고이신것 같습니다. 미국말이 더 편하시분인데도 한국말로 자세히 제가 알 수 있도록 언제나 빠르게 진행해주시고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로징할때 저보다 더 기뻐해주시고 축하해주신 켈리님!!! 저희 가족들은 만나면 이분의 알게 된걸 큰 행운입니다. 이 소중한 인연 끝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족의 권유로 집을 살준비도 못한채 최은경님을 소개를 받고 집을 장만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무도것 모르고 시작한 저한테 1부터 10까지 자세한 설명으로 집을 살때 어떻게 해야하면 계속 연락해주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안되면 하는수 없다고 생각한 저한테 포기하면 안된다고 말씀해주시고 많은것 도와주셨습니다. 마지막 클로징 할때도 같이 해주시고 정말 당신일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는 가족들은 이분하고 집이면 사업장이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알게된 소중한 인연 끝까지 이분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Chris Choi (Boston Premier Realty, Phone 781-690-4389)



켈리 김 Licensed in MA, NH, RI, FL, NJ
Kellie Kim Thielen

주택대출 전문가
nmls #2027241
617.733.5014
kkimthielen@radiusgrp.com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 식당 온라인 오더와 온라인 페이먼트를 한자리에서 해결
- 헤어와 네일 살롱의 온라인 예약과 온라인 페이먼트를 컴퓨터로
- 다양한 옵션을 완비한 디펜더블 컴퓨터로 간단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살롱
온라인 음식 주문과 지불 epipay™	온라인 예약 관리 epiday™
온라인 매장 관리	온라인 매장 관리
고객 관리	고객 관리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GIFT CARD 프로그램	GIFT CARD 프로그램
종업원 관리	종업원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Dependable Computer is an authorized independent reseller of United POS Solutions, Inc."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thony (Dubleu) Parish (Korean Church)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Contact: stadparish@gmail.com 617-538-2711

45 Ash St, Newton MA 02458 / 617-668-2711
stadparish@gmail.com / stadparishchurch.org
www.facebook.com/stadparish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총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중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원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3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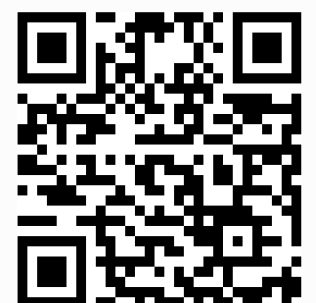


백신을 접종해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세요

무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으세요
 신분증, 건강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백신접종장소를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찾으세요
[MASS.GOV/COVIDVACCINE](https://mass.gov/covidvaccine)



Asian American Civic Association



Eastern Bank

JOIN US FOR GOOD

제 1회 뉴잉글랜드지역

동해·독도 지명표기 조사·활동보고 공모전

공모주제

- 뉴잉글랜드 지역 교과서, 공공 장소 지도, 출판물 등에 표기된 동해(East Sea) 표기 실태를 조사하고 체험한 내용 및 활동 소개
- 독도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활동 소개

일정

접수기간 2021. 9. 24(금)-10.30(토)
시상식 2021. 11. 7(일) 5시

참여대상

뉴잉글랜드 지역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K-12)

접수방법

- Google form 접수, 공모 작품 파일 업로드(아래 QR 코드 사용)
<https://forms.gle/4gW6QSmb5WyB1NyU9>
- 접수문의
haveand1008@gmail.com
serapina.p@gmail.com

학년별 공모 작품유형

- K-2학년: 그림일기 내용 30자 이상
- 3-5학년: 포스터 12X18인치, 100자 이상
- 6-8학년: 에세이
12 font, double space, 2페이지 이상
- 9-12학년: 보고 프레젠테이션 비디오
파일형식 MP4, 최대 5분,
본인 얼굴 2/3 이상 삽입,
저작권 위배되는 음악 삽입 불가


시상내용

- 전체 대상 '나라사랑상' 1명
- 과정별 대상
'동해지킴이상, 독도지킴이상' 4명
- K-12학년별 금상, 은상, 동상 39명
- 전체 대상, 과정별 대상 수상 학교 및 교사 시상
- 참가자 전체 시상

심사기준

- 주제 적합성(내용 이해 및 활동 확장성)
- 교과서, 지도, 출판물, 지역 공공장소 등 조사 노력
- 시정 노력
- 작품 완성도



주최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후원  주보스턴총영사관  보스톤코리아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652) 주식시장 거품(Bubble)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미국이나 한국이나 요즘 친지들을 만나면 화제가 주로 주식투자이다. 투자로 돈을 얼마 벌었는지에 대한 무용담이 대부분이다. 이런 투자 성공담(?)을 접하면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하다. 그런데 한편에선 주식시장이 거품으로 큰 폭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다. 투자자 마음이 심란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미래는 분명 아무도 알 수 없다. 주식시장 예측은 더욱더 어렵다.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의 주식시장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Dow 36,000” 이란 책이 출간되었지만, 많은 전문가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책이 나오기 5년 전 다우는 3,400에서 단기간에 지수가 두 배 이상인 8,800으로 수직으로 상승했다. 연평균을 참조하면 1995년 38%, 1996년 23%, 1997년 34%, 1998년 29%, 그리고 1999년에는 21%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 당시 일반 투자자는 물론 전문가도 주식시장 과열을 언급한 것은 무리가 아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은 과열되었고 거품으로 가득

차 있다는 분위기에서 다우가 36,000으로 상승한다고 언급했으니 혹평은 물론 심지어 조롱까지 받은 이유이다.

연준(FED)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비이성적인 풍요(Irrational Exuberance)” 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Dow 36,000” 을 비평했는데 이뿐만 그런 것이 아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실러도 과열된 주식시장 위험을 경고, 다른 노벨 수상자인 필 크러그먼은 거품으로 가득 찬 주식시장, 버클리 대학의 경제학자인 브래드 디룡교수는 “분명하게 돈을 잃는 조언(Incredibly money-losing advice)” 이라고 “Dow 36,000” 책을 혹평한 것이다.

지난 12년간 주식시장 연평균 15%씩 상승했으니 요즘 주식시장 거품이란 말이 22년처럼 회자되고 있다. 여기에 코비드, 물가상승, 이자율, 등으로 주식시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기에 투자자가 두려워하는 것이다.

과거 주식시장 폭락 경험을 정리해 보자. 1950년부터 주식시장 10% 이상 하락(Cor-

rection)이 36번이나 있었다. 평균 2년에 한번씩 하락을 경험했지만, 주식시장 상승도 물론 있었다. 1990년부터 1997년까지 7년 동안 하락 없이 꾸준히 상승했고, 2002-2007년까지 4.5년 동안 상승, 그리고 2011-2015년 4년 동안에도 계속 상승했다.

1950년부터 20% 이상 폭락, 즉 주식시장 침체기(Bear Market)는 10번 있었다. 평균 7년에 한번씩 20% 이상 폭락을 경험한 것이다. 주식시장이 50%, 57%, 그리고 34%나 폭락하는 뼈아픈 경험도 했다. 1987년부터 2000년 닷컴 버블까지 이어지는 장기간의 침체기도 있었지만, 금융위기(2009) 후 코로나 폭락까지 주식시장이 12년 이상 놀라운 상승도 경험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언젠가 분명 하락한다. 큰 폭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특이한 현상은 아니다.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것이 주식시장 본래의 성격이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는 내일, 한 달, 일 년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학자금 마련, 노후대책, 은퇴 후 생활비, 등을 마련

하기 위한 장기투자이다.

투자자산이 50 million에서 25 million으로 반 토막이 되어도 주식시장 회복을 기다릴 수는 있다. 그러나 은퇴자산 50만 불에서 25만 불로 줄어들면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 두려움에 잡도 지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투자자 본인과 가족의 재정 상황을 검토하여 투자위험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투자해야 한다. 제대로 형성된 자산분배와 분산투자로 구성된 투자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이유이며 주식시장 거품이라는 예측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우 존스 8,800에서 주식시장 거품(Are stocks overvalued? Not a chance, James K. Glassman and Kevin A. Hassett, WSJ, March 30, 1998)을 논하였지만, 현재 36,000 언저리에 있다. 과거처럼 요즘 주식시장 과열이 화제이지만, 제목이 “Dow 72,000” 이란 책이 출간된다면 조금도 주저함 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22년 후 다우 72,000이란 매우 보수적인 숫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22세 풍월주(風月主) 양도공(良圖公)(4)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장수로서의 김양도, 파진찬(4등급) 김양도는 김유신 휘하의 장군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쳐서 삼국통일을 이룩하는데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660년(태종무열왕7년) 백제의 수도 사비성을 함락시킨 후, 당나라의 장수 소정방이 정립사 5층석탑에 전송기념비문을 새겼는데, 이 비문에 김양도가 ‘우무위중랑장右武衛中郎將 김양도金良圖’ 라고 기록되어 현존하고 있다. 이듬해 661년에는 당나라 군대가 사비성을 탈환하려는 백제 부흥군들에 의해 포위당해 고립되어 있었다. 이에 신라는 문무왕 김법민이 이찬(2등급) 김품일(화랑도의 상징적 인물인 관창의 아버지)을 대당장군大幢將軍에 김양도를 부장에 임명하여 자신도 함께 친정하면서 당군을 구원하였다. 662년(문무왕2년)에는 평양을 포위한 당나라 군대의 식량 및 보급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인문(문무왕의 동생)과 함께 파견되기도 하였다. 또한 김양도는 668년에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하여 신라에서 편성된 지휘부 38총관 중에서 대당총관大幢總官의 임무를 띠고 참전하여 당나라 군과 함께 고구려를 멸하는 많은 전공을 세웠다.

김춘추의 외교술로 당의 지원군과 함께 백제와 고구려를 쳐서 삼국을 통일하였지만, 당

나라는 계속 옛 백제 땅에 웅진도독부(총 5개 도독부)와 옛 고구려 땅에는 안동도호부(총 9개 도독부)를 두며 백제와 고구려를 직접 지배하려는 속내를 내비추었다. 심지어 신라왕에게도 계림주대도독이라는 작위를 주는 등 신라까지 삼키려고 하였다(고구려 멸망 전인 663년의 일이다). 이에 신라는 고구려 부흥군을 지원하여 백제 땅에 주둔해 있던 당군을 공격하였다. 나당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신라는 고구려 부흥군의 지원을 시작으로 선제공격을 하였고, 이어 당의 반격이 있었다(설인귀의 수군 및 당과 말갈의 연합육군). 그러나 신라는 재반격으로 매소성 전투에서 대승하면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그 후로도 십수 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가 있었지만, 676년 금강 하구인 기벌포 앞바다에서 신라의 수군과 설인귀가 이끄는 당나라의 수군이 싸운 전투에서 신라군의 대승리로 나당전쟁은 막을 내렸다.

이에 앞서 나당연합군으로 백제(660년)와 고구려(668년)를 멸망 시키자, 당나라는 삼국에 도독부를 설치하면서 직접지배의 야욕을 드러내었다. 이에 맞서 신라는 고구려 부흥군을 지원하여 옛 백제 땅에 주둔하고 있던 당군을 공격하였다. 당나라가 이를 문제 삼고 나왔다.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669년(문무왕9년)에 김양도는 김흠순과 함께 당나라에 파견되

었다. 그러나 당고종은 그들을 억류하여 하옥시켰다. 이듬해 670년, 김흠순은 풀려나와 귀국하였으나 김양도는 계속 억류되었고 안타깝게도 이국에서 옥사하였다. 화랑 김양도는 화랑도의 정신인 임전무퇴의 태세로 수많은 전쟁에 참전하여 무수한 무공을 세움과 동시에 특출한 문장과 외교술에도 능하여 왕명을 받들고 당나라에 여섯 번이나 사신으로 다녀왔다. 사실 그는 다섯번만 귀국하였다. 669년에 각각 김흠순(19세 풍월주, 김유신의 동생)과 함께 웅진도독부 공격에 대한 해명을 하러 당나라에 갔을 때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670년).

김양도는 어머니 양명공주가 김모종과 사통하여 낳은 아들이다. 양명공주는 남편 설보종이 색사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 김염장(17세 풍월주)과 사통하여 아들 장명長明을 낳았고, 김모종과 사통하여 양도를 낳았다. 그런데 아들이 없었던 보종은 장명은 직접 거두지 않았지만 양도는 친자와 다름없이 함께 살면서 자신의 사자嗣子(대를 이을 아들)로 삼았다. 이에 양도는 보종공을 친부로 알고 자랐다. 하지만 성장하여서는 모종이 친부인 것을 알고 그간 아버지로 존경하고 효를 다하지 못한 회한으로 더욱 효도를 했다. 이에 모종은 친자이기는 하지만 보종공의 사자嗣子이니 자신을 숙공叔公으로 사랑해 주길 원했다.

한편 김양도는 어려서 부터 기개가 늠름하고 성정이 어질고 총명하여 일찍이 낭계에 발탁되어 화랑이 되었다. 이부형 장명(양도의 어머니 양명과 염장이 낳은 아들) 보다 먼저 화랑도의 입문이 거북스러워 장명에게 양보를 하려하자, 염장이 말하기를 “집과 나라에는 모두 사자가 있으니, 아버지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비록 형에게 우애롭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죄를 얻을 것이다” 하면서 아들 장명에게는 더 이상 형으로 처신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그로부터 장명은 이부동생 양도에게 몸을 굽혀 섬겼다. 양도 역시 친부와 다름없는 도리로 염장을 섬겼다.

한편 양도의 어머니 양명은 색사에는 무관심인 지아비 보종과 일찍이 낳은 두 딸이 있었다. 그들이 보라寶羅와 보랑寶良인데, 보라는 김춘추와 결혼하여 딸 고타소를 낳고 일찍 죽었다(625년경). 보랑은 진평왕의 후궁이 되어 많은 사랑을 받아 보로전군寶路殿君을 낳았다. 그런데 승만왕후의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출궁당했다(승만부인 손씨는 마야왕후가 죽은 뒤 들인 후비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BTS 뜨자 유엔 유튜브 조회수도 폭발...퍼포먼스 영상 1천200만뷰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최근 유엔 본부에서 펼친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 퍼포먼스 영상이 공개 이틀이 채 되지 않아 유엔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만 조회수 1천200만 건을 돌파했다.

22일 유튜브에 따르면 유엔이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게재한 BTS 유엔 본부 퍼포먼스 영상은 이날 오후 6시 20분 기준 1천27만 뷰를 넘겼다. 유엔 유튜브 계정에 있는 모든 영상 중 가장 많은 조회수다.

유엔은 영상 소개 글에서 BTS를 "K팝 센세이션"이라고 칭하면서 "이 비디오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중요성에 대한 청중들의 공감을 모으고 행동에 영감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썼다. 유엔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BTS의 다른 영상들 역시 조회수가 수백만 회에 달했다. 유엔 본부 인터뷰 영상이 353만 뷰, 유엔 총회장에서 한 연설 영상 두 개가 총 363만 뷰를 기록했다. BTS 슈가는 "유엔 인터뷰가 아무리 유엔 총회를 해도 조회수가 한정돼 있는데, 우리가 참석함으로써 조회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 많은 말을 해줬다"고 이날 네이

바로 퍼포먼스 준비를 시작해 유엔 총회장과 건물 안팎을 오가며 촬영을 마쳤다. 멜리사 플레밍 유엔 글로벌소통국 사무차장은 연설 직후 이어진 BTS와 인터뷰에서 "새벽부터 아침까지 촬영했다는 걸 알고 있다"며 "그 퍼포먼스 영상은 지금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한다"고 감사를 표했다.



버 브이라이브를 통해 말했다. 리더 RM은 "우리는 스피커로서의 역할"이라고 했고 진도 "많이 들 보셨으면 우리 역할을 다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맞장구쳤다.

BTS는 앞서 20일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 회의(SDG 모멘트) 행사에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연설을 통해 청년 세대에 대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유엔 본부를 무대로 한 '퍼미션 투 댄스' 퍼포먼스 영상도 공개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BTS는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곧

BTS가 이번 행사에서 착용한 의상이 해외 명품 브랜드가 아니라 코오롱FnC의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 '레코드'(RE;CORD)가 만든 정장인 사실도 화제가 됐다.

레코드는 전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슈트는 방탄소년단의 유엔 연설을 지지하며 지속가능패션을 최대한 표현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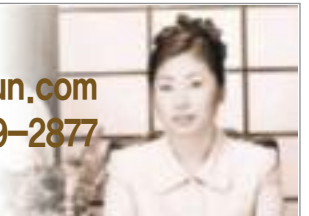
한편, BTS는 유엔 본부 퍼포먼스 영상의 '익스텐디드 버전'(확장판) 영상을 공식 유튜브 계정 '방탄TV'에 전날 공개했다. 이 영상 역시 공개 하루 만에 450만 뷰를 넘기며 호응을 얻고 있다.

rambo@yna.co.kr

9월 26일 - 10월 2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운수: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항상 설마하면서 방심하다가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금전: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애정: 누군가 한 사람이 저주어야 끝이 나는 싸움을 서로가 고집을 세우니 쉽게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6, 29일 길일, 28, 1일 주의.

소띠 | 믿어주는 만큼 좋은 결과가

●운수: 내려놓기 전에는 큰 일이 날 것 같아도 막상 손에서 내려놓으면 아무 일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금전: 돈벌이로 하는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하는 일을 즐겁게 하다 보면 돈이 저절로 따라줄 것입니다. ●애정: 잘 할 것이라 믿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믿어주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6, 30일 길일, 29, 2일 주의.

범띠 | 발등에 불이

●운수: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미뤄왔던 일을 더 이상은 미루기가 힘들 것입니다. ●금전: 피해를 줄이려면 미리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 밖에 없습니다. 미리 철저히 대비한 사람과 손 놓고 있다가 당하는 사람과 다가오는 결과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애정: 소개받는 것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생각했던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8, 1일 길일, 30, 2일 주의.

토끼띠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운수: 갈수록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기운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구상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전: 막연한 기대감으로 기다리지 말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몇 %인지 수치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애정: 보는 것이 편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표정관리를 잘하세요. 99, 87, 75, 63, 51, 39년생은 27, 29일 길일, 28, 1일 주의.

용띠 | 생각이 도는

●운수: 생각이 도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픈던 사람은 점차 몸이 나아집니다. ●금전: 평소 때보다 머리가 맑아 지니 판단력도 상승합니다. 금전관리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내 주변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 이 너무도 많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클수록 행복도 커집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7, 29일 길일, 26, 2일 주의.

뱀띠 | 귀한 정보를 얻는

●운수: 아는 길도 물어서 가려는 말이 있듯이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귀한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금전: 이미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부터 마음만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애정: 처음에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힘들겠지만 인내심을 가지세요. 대화를 나누다보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6, 1일 길일, 27, 30일 주의.

말띠 | 꼼꼼하게 체크하고

●운수: 다소 귀찮은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금전: 자금회전이 잘 되지 않아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다. 가능한 한 현금을 준비해두세요. ●애정: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큰 용기를 내어 원가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7, 30일 길일, 26, 28일 주의.

양띠 | 가속도가 붙는

●운수: 간절하게 원하면 길이 열린다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점차적으로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뀔 것입니다. ●금전: 그동안 해오던 일에 가속도가 붙는 운세입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매력 이 내 눈에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랑에 빠져들어 갑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8, 1일 길일, 26, 2일 주의.

원숭이띠 | 묵묵히 의연하게

●운수: 수양산 그늘이 강동 팔십 리를 간다는 말처럼 지금 내가 베풀면 그 덕을 여러 사람이 보게 됩니다. ●금전: 묵묵히 의연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해온 사람에게는 보상받는 것 같은 일이 생깁니다. 금전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애정: 어디 있다가 이제가 나타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상대가 드디어 내 인생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6, 29일 길일, 27, 30일 주의.

닭띠 | 더 멀리 뿔 준비를

●운수: 개구리는 뛰기 전에 움츠려야 더 멀리 뿔니다.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더 멀리 뿔 준비를 하세요. ●금전: 당장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선택하세요.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이득이 될 것입니다. ●애정: 힐링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신건강에 유익할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6, 30일 길일, 28, 1일 주의.

개띠 |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운수: 늦춰서 좋은 일이 있고 미루고 늦추다가는 낭패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멈추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금전: 외모만 보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하세요. 특히 일과 관련해 잘 판단하면 손해로 연결됩니다. ●애정: 상처주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빨리 치 료되지 않고 흉터로 남아 오랜 시간 영향을 주는 상처도 있는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7, 1일 길일, 29, 2일 주의.

돼지띠 | 한 번 더 생각해야

●운수: 그 어떤 일도 지나고 나면 허무한 꿈에 불과하니 당장 생긴 상황만 보고 너무 속을 끓이지 마세요. 귀한 내 몸만 상합니다. ●금전: 돈이 빠져나가는 운입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돈을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애정: 나중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되돌릴 수만 있으면 되돌리고 싶은 행동을 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26, 28일 길일, 27, 30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스시맨 풀타임, 파트타임 구합니다.
T. 508-655-3951, 978-494-2712

내탁물에 있는 옷가게에서 성실하게 일하실 분을 찾습니다.
영어 가능하신분.
T. 617-543-9656(John)

브루클라인 6개월된 아기 돌봐주실 분 구합니다.
화, 목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T. 410-215-3301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선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헤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오징어 게임' 한국 드라마 최초 미국 넷플릭스 1위 돌풍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이정재가 주연으로 나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한국 작품으로서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에서 인기 작품 1위를 차지했다.

22일 넷플릭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role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전 날까지 미국에서 1위였던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를 앞지르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 월드랭킹 TV 쇼 부문에서도 2위를 기록 중이다.

지금까지 한국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가 기록한 미국 최고 순위 작품은 지난해 공개된 '스위트홈'(3위)이었다.

'오징어 게임'은 한국과 미국에서는 물론 홍콩, 대만,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싱가포르 등 총 14개 국가에서 1위를 기록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9개 국가에서는 2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데 성공했다.

'오징어 게임'은 더는 물러날 곳이 없는 이들이 거대한 공간에 갇혀 456억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벌이는 미스터리한 서바이벌 게임을 그린 작품이다.

화려하고 거대한 스케일의 세트장과 이정재의 연기 변

신이 눈에 띄며 박해수, 오영수, 위하준, 정호연, 허성태, 아누팜 트리파티, 김주령 등 주·조연의 연기력도 합격점을 받았다. 영화 '도가니', '수상한 그녀', '남한산성', '도굴'의 황동혁 감독의 군더더기 없는 연출도 호평받고 있다.

생존 서바이벌 장르 특성상 다소 작위적이고 뻔한 전개가 있기는 하지만 공개 직

후 배우들의 열연과 게임 하나하나의 완결성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며 미국 비평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지수 100%를, IMDB에서 10점 만점에 8.2점을 기록하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의 감상 후기도 이어지고 있어 한동안 '오징어 게임'의 화제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블랙핑크 리사, 솔로 데뷔곡으로 빌보드 진입... '핫 100' 84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그룹 블랙핑크 리사가 솔로곡 '라리사'(LALISA)로 미국 빌보드 차트 84위에 올랐다.

빌보드는 트위터를 통해 리사의 첫 싱글 타이틀곡 '라리사'가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84위에 올랐다고 20일(현지 시간) 밝혔다.

핫 100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내는 차트로 K팝 여자 솔로가수의 노래가 이 차트에 드는 것은 CL '리

프티드'(90위), 블랙핑크로제 '온더 그라운드'(70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라리사'는 이 차트에 오른 블랙핑크의 일곱 번째 곡이기도 하다. 블랙핑크가 피쳐링에 참여한 팝스타 두아 리파와 레이디 가가의 곡까지 합하면 아홉 번째다.

아울러 '라리사'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지역 집계로 인기곡 순위를 내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는 각각 2위에 자리했다.

rambo@yna.co.kr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보스톤공과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꿈속에서라도 만나보고 싶은 얼굴...

이별은 참 슬프다. 사별은 참으로 고통스럽다. 훌쩍 떠난 빈자리에 꿈인가 싶어 정신을 모아보면 현실인 것에 가슴이 먹먹해 온다. 가끔 찾아오는 명치 끝 그리움에 몇 날을 못 앓이를 한다. 남편이 우리 가족인 세 아이와 아내인 내 곁을 떠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유난히 아이들을 예뻐하던 아빠를 떠나보내고 세 아이를 보며 엄마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 싶어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 훌쩍 6개월을 보냈다. 저녁이면 자동차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 현관문을 활짝 열고 신발을 벗으며 웃음 띤 얼굴로 들어올 것만 같다.

남편의 묘지(Cemetery)는 집에서 걸어서 45분 자동차로는 7분 정도 걸린다. 비가 오는 날에는 자동차로 찾아가지만, 보통 날에는 걸어서 45분 도착해서 얘기를 나누고 30분 정도를 세메터리 주변을 돌다가 다시 집으로 오면 45분이 걸린다. 그렇게 걷고 오면 딱 2시간이 걸린다.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시간이며 머리도 맑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이라 참 좋다. 감사한 것은 남편과 마주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 속에서의 연단이리라.

아빠를 떠나보내고 아이들은 한 번씩 아빠 꿈을 꾸었다고 말해온다. 딸아이는 20대 초반의 아빠 얼굴로 만났다고 하고, 아들아이는 아빠를 만났다고 한다. 남편이 정말 보고 싶은데, 내 꿈에서는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꿈속에서라도 만나보고 싶은 얼굴 너무도 보고 싶고 사랑하는 남편을 꼭 만나보고 싶었다. 그러다가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 중 망망대해에서 하룻밤에 꿈에서 나타난 것이다. 너무도 반가워서 등을 몇 번이고 만지고 쓰다듬으며 내 남편이 맞다고 또 맞다고 반복해 토해냈다.

꿈속에서였지만, 저쪽 편에 한 사람이 함께 와 있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꼭 포옹을 하고 있었지만, 금방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너무 다급한 마음에 그림 전화번호라도 주고 가라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반문을 했다. 뭐라 뭐라 일러준 숫자는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았다. 다만 이 사람이 급하게

떠나며 크리스(큰아들)에게 번호를 주었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아침에 눈을 뜨고 어젯밤 꿈을 생각하니 마음이 가라앉고 가슴이 먹먹했다. 순간 명치 끝 짙은 그리움이 뭉클뭉클거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떠났던 여행 스케줄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다. 큰아들이 여행은 즐거웠느냐고 묻는다. 좋았다고 답을 해주었다. 그리고 꿈 얘기를 나누었다. 아빠가 네게 전화번호를 주었으니 알 거라고 하시더라고 말이다.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서로 말이 없었다. 잠시 아빠를 생각하고, 남편을 떠올렸던 시간인 것이다. 이런저런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다시 주고받았다. 그러던 중 큰아들이 콘도를 하나 보려고 계획 중이라고 엄마한테 말해준다. 그 얘기를 듣던 중 아빠가 내가 알 거라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었던 모양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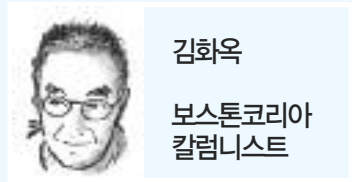
큰아들과 엄마는 그 이야기를 마친 날 며칠 후부터 보스턴 시내의 몇 군데 콘도를 보기 시작했다. 떠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욕심이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

도를 했다.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곳과 인연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다. 그러면서 남편에게도 부탁을 했다. 세 아이와 나와 함께 동행해달라고 어느 것의 결정이 필요한 시간에 꼭 곁에 있어달라고 말이다. 네다섯 곳을 돌아보며 마음에 드는 곳이 두 군데 있었다. 그렇지만 인연이 아니었는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3주 후 보스턴 시내의 콘도를 다시 두 곳을 보게 되었다. 두 군데를 놓고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딸아이가도 함께 움직이게 되어 아들과 엄마와 셋이 움직이게 되었다.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말이다. 셋이서 서로의 의견을 내어놓으며 하룻밤을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 날에 오퍼를 넣었고 사게 되었다. 큰아들이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것인데, 엄마의 결정을 많이 존중해줘서 고맙웠다. 엄마, 아빠도 우리와 같은 의견과 선택과 결정을 했을 것 같다고 말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만국올림픽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감히 해외여행을 꿈꿀수 없을 적이다. 한국에서도 외국인은 쉽게 눈에 띄이지 않았다. 이따금 스치는 주한미군 정도였다.

유튜브에서 봤다. 몇해전 한국 티비에서 방영되었던 프로그램이다. 여러나라 젊은이들이 모여 다방면의 주제로 토론하는 방송이다. 토론이라 하면 무겁다. 그러나 오고가는 말들은 가볍고 유쾌했다. 오죽하면 말쑤 한다는 인사들도

객원으로 출연하곤, 별반 목소리를 높일 수없는듯 보였던 거다. 한편 출연자들이 논리정연하게 주장을 펴는건 놀라웠다.

토론은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출연자들의 한국어 또한 막힘없이 유창했다. 한국어가 모국어인 나보다 더 잘하는 듯 싶었던 거다. 미국, 일본, 중국, 브라질, 프랑스, 독일, 가나, 이집트, 캐나다, 호주도 있었던가. 내나라 하는 나라들은

모두 이름을 올렸고, 출연한 청년들은 자국自國의 대표처럼 보였다. .정녕 한국어올림픽이 아닌가 했다.

방송중 그들의 모국어이야기가 나오면 곧잘 흥분했다. 한치 물러섬 없이 제 주장을 펴는 거다. 하지만 모두 수긍할적이면 곧 합의에 이르렀다. 한편 출연자들은 피차 형과 아우로 부르는건 크게 이상할 것도 없어 보였다.

프로그램 제목이 재미있다. 비정상회담. 비정상非正常인가 아니면 비정상非頂上인가. 정상頂上은 아니다만 모두 정상正常을 넘어 비상非常한 젊은이들임에 틀림없다. 아마 그러할 거다.

올림픽은 젊은이들의 축제라 말하곤 한다. 지난 올림픽기간이었다. 각국의 메달순위를 들여다 봤다. 아니나 다를까. 내나라 하는 나라는 모두 상위권에 들어 있었다. 체력은 국력이라 했는데, 메달순위 역시 GDP 순위와 비슷한듯 같아 보였던 거다. 한국도 상위그룹

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예전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동네잔치를 벌였다. 모두 기뻐하는 말일테고, 자랑스러웠기 때문일터. 잔치에 꿩고리와 장고복도 등장했었네니 흥겨워 어깨 역시 들썩였을게다. 만국기도 걸렸던가. 올림픽에서 처럼 말이다.

올해 광복절 축제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걸렸다고 했다. (보스톤 코리아 2021-08-15) 역시 축제엔 깃발이 휘날려야 제격이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2)



휴람 - 중앙대학교병원 해외동포 특별가 검진프로그램

- 정밀한 최첨단 의료시스템
-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따뜻한 서비스
-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
- 1:1 맞춤형 평생 건강관리

기분 검진 프로그램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해외동포특별가 프로그램 혜택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검사항목
종합검진 기본항목	신체계측, 체성분분석, 안과(안압, 안저, 시력), 청력, 폐기능, 흉부촬영(전면, 측면), 심전도, 혈액형, 일반혈액
	간기능,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신장기능, 전해질, 당뇨(공복시혈당, 당화혈색소), 매독, 에이즈
	종양표지자(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남], 난소암[여], 유방암[여]), 고지혈증, 요산, 갑상선기능, 소변, 식생활평가, 류마티스인자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액상자궁경부암검사[여], 유방촬영[여], 여성호르몬[여]

남성 검진 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가격
휴람 남성 종합검진	<종합검진 기본항목> 대장내시경(수면), 전립선초음파, 저선량 흉부CT, 비타민D	900,000
휴람 정밀 종합검진	<휴람 남성 종합검진> 뇌MRA + 심장초음파	1,450,000
휴람 VIP 종합검진	<휴람 정밀 종합검진> 뇌MRI, 복부 & 골반CT, 경동맥초음파, 동맥경화도(ABI), 골밀도, 남성호르몬, 갑상선초음파	2,430,000
휴람 VVIP 숙박 검진프로그램	<휴람 VIP 종합검진 > 관상동맥CT + PET-CT(암정밀검사) + 복부비만CT + 뇌, 심장 정밀혈액검사 + 1인실 숙박 + 픽업서비스	3,800,000

여성 검진 프로그램

프로그램	검사항목	가격
휴람 여성 종합검진	<종합검진 기본항목> 대장내시경(수면),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비타민D, 골밀도검사	990,000
휴람 정밀 종합검진	<휴람 여성 종합검진> 뇌MRA + 심장초음파	1,540,000
휴람 VIP 검진 프로그램	<휴람 정밀 종합검진> 뇌MRI, 복부 & 골반CT, 저선량폐CT, 경동맥 초음파, 갑상선초음파, 동맥경화도(ABI) + 인유두종바이러스 DNA	2,610,000
휴람 VVIP 숙박 검진 프로그램	<휴람 VIP 종합검진> 관상동맥CT + PET-CT(암정밀검사) + 복부비만CT + 뇌, 심장 정밀혈액검사 + 1인실 숙박 + 픽업서비스	3,980,000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aram.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강남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당뇨병" 치료에 관한 오해는?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코로나 시대 음식의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당뇨병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강남병원 내 분비내과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코로나 시대, 음식을 배달시키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하는 질병이 있다. 바로 당뇨병이다. 조리된 배달음식들은 대부분 고칼로리 음식이나 탄수화물 과다, 지방과 당이 많이 함유돼 있는 디저트 등이 많다. 이러한 식습관이 지속되면 비만이나 당뇨병과 같은 질환이 증가할 수 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운동부족이나 스트레스 등 잘못된 생활습관 등이 당뇨병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 당뇨병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잘 체크해보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정기 검진을 통해 이러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난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 건강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느껴지지 않아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믿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당뇨병환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실제로 당뇨병을 진단받게 되는 환자의 과반수

가 무증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보다 물의 섭취량이 많아지고(목마름), 소변양이 많아진 다거나(다뇨), 음식을 많이 섭취함에도(과식) 불구하고 체중이 감소하는 등의 증상들은 당뇨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고혈당이 심한 경우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당뇨병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뇨병의 발생여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한다.

난 말라서 당뇨병과 상관없어
비만, 특히 체지방량의 증가는 체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특히 당뇨병 초기에 관찰되는 현상이다. 하지만 당뇨병 초기 현상은 비만이 아닌 마른 사람에게서도 체내 인슐린 저항성 증가는 흔하게 관찰되기 때문에 당뇨병 발생 여부는 정기적인 검진 및 공복 혈당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아이인데 당뇨병일 리가?
아이들도 예외일 수 없다. 햄버거, 치킨, 피자 등의 패스트푸드나 과자, 초콜릿, 탄산음료 등에 입맛이 길들여진 요즘 소아청소년들의 비만과 당뇨병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인슐린, 한번 맞으면 평생 맞아야 하나?
당뇨병 초기 고혈당이 심하거나, 당뇨병의 유병기간이 길어지면서 당뇨병 약제로도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

이 인슐린 주사 요법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인슐린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심한 편이다. 소아에서 발생하는 1형 당뇨병은 자가면역 기전에 의해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생 인슐린을 투여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일반적인 성인에서 발생하는 2형 당뇨병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되며, 당뇨병의 유병기간이 수십 년 정도 되면서 체내 인슐린 분비기능이 매우 낮게 유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슐린 사용은 단기간 집중적인 혈당 조절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결국 합병증 때문이다. 고혈당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구석구석 모든 혈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신 혈관 합병증, 즉 전신의 모든 부위에 합병증을 유발하므로 합병증 발생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당뇨병 합병증은 침범하는 혈관에 따라서 미세혈관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으로 분류하며 미세혈관 합병증의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신증이다. 당뇨병성 망막증은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으며, 당뇨병성 신증은 만성 신부전의 대표적인 원인질환이다. 당뇨병 환자 중에 혈당 조절이 잘되지 않고 손발, 발끝의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의한 경우가 많다.

대혈관 합병증에는 관상동맥 질환, 즉 심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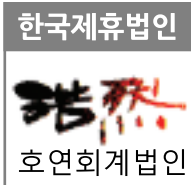
경색, 협심증 등의 질환이 있으며, 뇌졸중도 대표적인 당뇨병에 의한 대혈관 합병증이다. 또한 하지로 가는 혈류가 막히는 말초 혈관 질환이 동반되고,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의해 발의 감각이 무디어 지면서 생기는 질환인 당뇨병성 족부 질환은 가장 무서운 당뇨병 합병증 중의 하나다.

당뇨병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약물 및 인슐린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초기에 선별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당뇨병이 진단된 환자들은 철저한 혈당 관리와 함께 증상이 없을 때부터 정기적으로 합병증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다.

“코로나 시대, ‘당뇨병’ 치료에 관한 오해는?”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 휴람은 상담-예약-검진진행-사후관리를 보호지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 지금 상담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검진을 결정해 보세요!!



■ 휴람 건강검진 이벤트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4시간 :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60만원 ~

- 당일종합검진 +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9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남] 경동맥초음파, 뇌MRI, 뇌MRA
- 숙박종합검진 + [여] 뇌MRI, 뇌MRA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22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뇌MRI, 뇌MRA, 심장 CT, 심장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 [남] 갑상선초음파 [여] 폐CT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전 ~ 명일 12시경 퇴원 : 370만원 ~

- VIP종합검진 + PET-CT, 복부조영CT, 호르몬검사, 호모시스테인(중풍, 심혈관질환 인자)

휴람건강검진 네트워크 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 강남지인병원(논현동 학동역)
- 강남병원(용인시 신갈동 기흥역)

※ 프로그램에 따라 픽업서비스, 물품세트, 죽등을 제공합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불로 변경)

*전상품 1년 약정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⁹⁹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

\$34⁹⁹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

\$39⁹⁹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보스톤 전망대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빈공과(賓貢科)

해외에서 공부를 하려고 떠난 한국인들의 유학역사를 살펴보면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는 불교 승려들이 불법을 구하려고 떠났고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길을 나섰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공부를 하러 떠난 사람이 있었다. 나중에 신라시대의 문인 고운 최치원 선생이다. 그의 나이 12세에 집을 나와 중국으로 건너 갔는데 배를 타고 떠날 즈음에 이미 돌아가신 부친이 훈계하기를 "앞으로 10년안에 진사에 급제하지 못하면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라. 나도 아들을 두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부지런히 공부에 힘을 기울여라"라고 하였다고

당시 신라와 발해에서는 과거제도가 일절 없었다. 그래서 출세를 하려면 당나라에 유학해서 '빈공과(賓貢科)'라는 시험에 합격해야만 했다. 빈공이라는 뜻은 인재 천자에게 천거해서 바친다는 뜻으로 이를 공사(貢士)라고 부른다. 그래서 많은 신라 유학생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황해를 건너 영달의 길을 찾아 떠난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신라방의 주요 고객은 유학생과 거기에 떨어진 인력들이었다. 빈공에 급제해도 중국 내국인처럼 좋은 대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신라 본국에 돌아가서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합격자의 약 80%가 신라인으로 그 뒤를 발해, 페르시아, 일본, 오끼나와, 동남아 국가들이 이었다.

삼국사기 선덕여왕 9년(640년)에 당나라에서는 유학자들을 많이 초빙하여 국자감에서 그들로 하여금 학문을 강론케 하니 신라를 비롯한 고구려, 백제, 고창, 토번의 자제들도 함께 보내어 입학하게 하였으며 당시 학생이 3,260인에 달하였다고 한다.

그이후로 삼국통일을 완수한 후에는 국가 조직 통치계층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682년 신문왕 2년에 국학을 설치했고, 788년 원성왕 4년에는 독서 3품과를 부설했는데 5두품이상의 자제에게만 입학 자격이 주어졌으므로 6두품이하의 지식계층들은 자신들의 신분상승을 위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당나라에서의 유학기간은 10년정도인데 기간이 지나서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뒤를 이어 다른 학생이 과견되게 된다. 한번은 서기 840년 문성왕 때에 만기가 된 유학생 105명이 동시에 귀국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극심한 경쟁 속에서 당나라가 망하기 전인 906년까지는 신라인 58명이 급제하였고 당나라가 망한 후에는 20년동안 22명이 급제해서 모두 80명의 신라인이 급제하였다. 발해 학생들은 두번째 많은 10명이 합격하게 되었다.

합격자 가운데 최치원과 김가기(金可紀)는 문장으로 출중했고, 박인범은 시로, 김약

은 예로, 최승우와 최언위는 문사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모두 신라인 급제자들이었다.

당시에 당나라에서는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 당나라가 황소(875~884)가 일으킨 농민 반란으로 수도 장안이 황소군에게 함락당한 것이다. 당나라 황제 희종이 서문에서 황급히 빠져나가고 동문으로는 환호하는 황소군이 무혈 입성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한다.

병란 중에 유학생과 과거 급제자들은 대부분 신라로 귀국하였는데 그들은 당나라에서 경험한 신분제의 개방과 누구나 입신양명할 수 있는 당나라의 과거제도를 찬양하면서 폐쇄적인 골품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신라 왕실에 대한 비판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당나라에서 과거에 급제한 최승우가 귀국해서는 견훤을 도와 격서를 쓰고 또 다른 급제자 최원위가 왕건을 돕게 된 것은 누구든 능력있는 사람은 중용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신라는 성골 진골에게만 높은 관직을 주는 골품제도를 진작에 버려야 했다.

당나라가 망하고 나서 송나라, 원나라에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리 채용 자격 시험이 있었다. 다만 이름이 '빈공과'에서 '제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시험은 예전처럼 계속되고 있었다.

고려 4대왕 광종은 서기 958년 5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과거시험을 통해 벼슬길에 오르는 길을 마련하였다. 일제 강점기를 빼고는 한번도 과거가 중단된 적이 없었고 1894년 갑오경장 때 비로서 과거가 폐지되었다.

광종은 과거제도를 받아들여려고 중국 후주에서 과거시험을 주관하는 책임자인 쌍기를 신라로 데려왔으며 그의 견의를 받아들여 과거시험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과거시험은 시(詩), 부(賦), 책(策), 송(頌) 네 과목의 시험을 보았고 4년후에는 "시무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수 있는 시책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왕은 쌍기를 한림학사로 임명하고 쌍기가 고려 신민이 되도록 하였다. "고려사 절요"에 의하면 당대의 석학 이제현은 "과거를 설치하여 선비를 뽑는 일에 대해 왕(광종)이 배움의 뜻을 가지고 풍속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뜻이 있었고 쌍기 역시 그 뜻을 받들어 아름다움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신라 발해의 자존심 싸움
남북국 시대 때 신라와 발해로 건너간 재당 유학생들은 빈공과에 응시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많았다. 10년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합격하는 빈공과를 최치원은 6년만에 장원급제(784년) 하였다. 장원한 사람이 최치원이라



양주 당성



양주 최치원 기념관



1865년 무과 급제자에게 발급한 홍패 교지



홍패 교지

는 이름이 호명되자 당 휘종은 그가 신라인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신라인 진사가 이제 겨우 18세의 어린 나이라는 것은 몰랐다.

신라는 모두 80명이 빈공과에 합격했는데 신라 다음으로는 발해가 모두 10명이 합격하였다. 그런데 1, 2등 신라, 발해 출신들간에 알력이 대단하였고 그 중심에 최치원이 있었다.

발해 출신 오소도(烏召度)가 872년도 장원을 차지하였고 신라출신 이동(李同)이 장원을 내주게 되었다. 최치원은 신라사람이 장원을 빼앗긴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하며 발해 사람에게 수석을 내주는 게 옳은 일이나 당나라에 따지기까지 하였다. 그는 어찌 술지계미(발해, 나쁜 술)를 박주(신라에서 접대할 때 쓰는 좋은 술)와 함께 마시며 취할 수 있겠는가 하며 분개하였다.

그다음 877년 빈공과 시험에서는 박인범, 김약 두명의 신라인이 합격했고 발해 유학생은 한명도 뽑히지 못했다. 최치원은 시험관 고대부에게 편지를 보내 "대부의 엄격한 시험관리로 신라인들이 합격했고 추한 오랑캐(발해)를 용납하지 않아 과거에 흠집을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하였다. 만약에 최치원이 공식석상에서 발해사람을 비하했다면 합격을 취소할 만큼 과격적인 언동이었다.

마침 세월이 흘러 빈공과에서 장원을 했던 오소도가 발해의 재상이 되었는데 906년에 오소도의 아들 오광찬이 빈공과에 합격하였

다. 그런데 장원은 신라인 최원위가 차지하였다. 마침 오소도 재상은 당나라에 사신으로 왔다가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아들을 신라의 최원위의 뒷자리에 둘 것을 요청하였다. 당나라 조정은 최원위의 재주와 학식이 오광찬보다 우월하다고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발해의 재상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처신이였다. 발해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당나라에 파견된 대동에 왕자가 "신라보다 국세가 강한 발해가 상석을 차지해야 한다"는 요청을 했다. 물론 당나라는 이 요청을 거절하였다. 최치원은 국명의 선후를 어찌 국세의 강약으로 따질 수 있겠는가? 나라의 순서를 성쇠의 근거로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고운집)

최치원은 발해를 건국한 집단들이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말갈의 무리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이들이 거란, 돌궐 같은 오랑캐라는 것을 계속 부각시켜 온 것이다. 또한 최치원은 고대 중국인들이 사리 나무로 만든 화살쏘기에 능했던 속신족을 상기시켜 발해가 오랑캐 속신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해 왔고 이미 멸망한 고구려까지 싸잡아 욕을 해댔다. 다짐하지만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고구려와 같은 세계 제의 반공국을 사용하는 나라였다. 고구려의 활과 화살은 삼국시대 때 오나라의 손권이 특별히 부탁해서 구할 정도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싸리나무 활이 아니었다.



NAMU • 나무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 금메달리스트
대통령 훈장 수훈/15년 이상의 경력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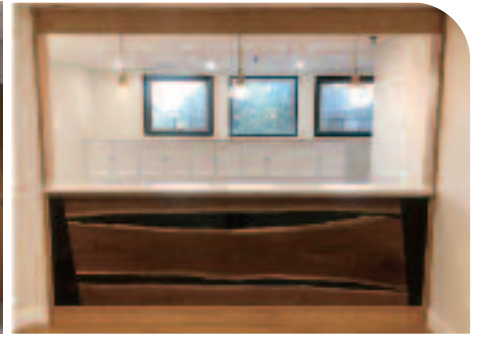
- 주방, 욕실, 방, 베이스먼트 리모델링
- 집, 상점 레노베이션
- 커스텀 캐비닛, 바닥, 데크
- 원목 테이블, 가구

WHY NAMU

- ✓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 ✓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 ✓ 철저한 시간 약속과 빠른 공사



BEFORE



AFTER



무료
견적상담

www.namuma.com
info@namuma.com / 617-775-4771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MA 전지역, NH 일부지역 공사)

THE PRO REALTY GROUP

수잔 부동산

풍부한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
한인 부동산 회사

T.339.224.1512

245 First Street Riverview II 18th floor Cambridge, MA02142



Susan Ahn

Broker & Principal

susan@prorealty.group

Kakao ID: susan1223



1 탁월한 협상
오랜경험과 전문적인 팀워크로 구성

2 바이어, 셀러
전문적 지식과 정확한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

3 이주자 상담
타주 & 한국 투자 상담

4 전문적인 일처리
30년 경력 부동산전문 변호사 파트너와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겠습니다!